소년단

1964. 4

빛나는 아침

림 철 삼

파릇파릇 물오르는
싱싱한 가로수도 손저어 반겨 주고
벙굴벙굴 저 하늘의 붉은 해'님도
거리도 마을도 나를 반겨 주는
빛나는 아침, 희망찬 새길로 나는 나섰다.

오늘은 손곱아 기다리던
4월 초하루…
새학년 새학기 첫 날!
산뜻한 교복에 붉은 넥타이 펄럭이며
새 교과서, 새 학용품 묵직한
책가방을 척 메고 나서니
어깨으쓱 키도 한뼘이나 자란 것만 같구나.

나도 인제는 중학생
내 손목에 칭칭 매달리는
인민반 1 학년 내 동생들도 데리고
즐거운 마음 안고 노래 부르며
빛나는 이 아침, 희망찬 새길을 걷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 없이 오가는 이 길,
《모범 분단》 휘장을 앞 가슴에 빛내며
최우등 성적증 가슴에 품고
언제나 떳떳하게 오가는 이 길을
새 결의로 가슴 들먹이며 활개쳐 간다.

—새학기에도 최우등생이 되리라!
《2중 모범 분단》의 영예를 반드시 빛내리라!
몸과 맘도 튼튼하게, 자래우고
착한 마음, 밝은 례절 꽃 피우며
언제나 이 길을 자랑안고 오가리라!

《준비 하자!》
《항상 준비!》
만나는 동무마다 인사도 정다운데
어느새 다 왔는가,
새 교실 창문이 어서 오라 반겨 주고
환히 웃으시며 선생님이 달려 오시네!
빛나는 이 아침, 희망찬 새 길을 마중 해…

나는 발'걸음 다우쳐 의젓하게 들어선다.
또 한해 배움으로 즐거울
행복한 사랑의집, 우리 학교 정문으로!

(1964. 4.1)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 년 잡 지

소년단

4
1964

차 례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 시절

(제 13 회)

강 효 순

그림 최 순천

11

성안에 들어 갔던 외조부는 돌아 오는 길에 원수님의 교과서를 사 가지고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교과서 꾸러미를 받아 든 원수님은 너무 기쁘고도 감격하여 한동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 나라에 와서 우리 말로 그리고 우리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였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원수님은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표지에 《조선어 독본 5권》이라고 씌여 있는 책이 눈에 띄였습니다. 편입 시험을 받을 때에 본 책이여서 더욱 친숙해 보였습니다. 원수님은 목차와 그림들을 대강 훑어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옛'이야기들도 있고, 우리 나라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담과 리언도 있었고 심 청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심 청에 대한 이야기는 원수님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우리 나라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심 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재미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교과서로 배우게 되였구나 하고 생각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원수님은 한문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제1 과에는 《5덕》이라는 제목이였습니다. 닭은 다섯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였습니다. 모두 한문 글'자로 된 것이지마는 원수님은 그 대로 내려 읽을 수 있었고 의미도 넉넉히 리해할 수 있었습니다. 별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책이였습니다.

원수님은 표지에 《국어 독본 9권》이라고 씌여 있는 책을 들었습니다. 표자를 번져 첫 페지를 본 원수님의 가슴은 섬짓해졌습니다. 원수님은 다시 표지를 덮어 《국어》라고 쓴 두 글'자를 유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일본말로 쓴 책인데 《국어》라고 쓴 것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이런 놈의 책으로 글을 배워야 하는가)

원수님의 두 눈에서는 불이라도 튕겨 나올 듯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속에서 설레이던 기쁨과 환희는 천 쪼각, 만 쪼각으로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원수님은 그 책을 내동댕이치거나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불 같이 일어 났습니다. 그러나 외조부께서 사 온 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외조부가 계신 웃방으로 올라 갔습니다. 외조부는 책상 앞에 마주 앉아 두터운 책을 들여다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을 가지구 글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구 일본말 책을 어떻게 〈국어〉 책이라구 할 수 있어요.》

원수님은 책 한 가운데를 쭉 펼쳐 외조부 앞에 내놓았습니다. 책을 들고 있는 원수님의 손은 떨렸고 음성은 부드럽지 못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외조부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머리를 약간 끄덕일 뿐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조부의 눈에서는 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의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거기 앉아라.》

외조부의 부드러운 음성이였습니다. 원수님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원수님은 흥분되여 가슴이 사뭇 들먹거렸습니다.

외조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범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단다. 물론 왜놈의 말루 된 교과서를 가지구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라든지 그 놈의 말루 된 책을 〈국어〉 책이라구 한 것들은 아주 불쾌한 일이지. 그러나 그 교과서를 가지구 어떤 정신으로 배워 주며 어떤 정신으로 배우는가에 있느니라. 자 그럼 좀 이야기를 해 볼가, 너는 오래 동안 중국에 가 있었으니까 조선 형편에 대해서 잘 모를 게다.》

외조부는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원수님과 마주 앉으셨습니다.

《일본놈들은 조선을 강점하기 전인 1905년에 벌써 〈림시 학사 확충안〉이라는 계획을 가지구 당시에 썩고 무능하던 매국 정부를 조종하여 자기네들의 야망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게 한 후 왜놈 교원들을 조선 학교에 박아 넣는데 성공했단다. 그 후 1910년 8월에 조선을 강점하고는 첫날부터 노예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조선 인민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미쳐 날뛰였단다.》

《〈황국 신민〉이 무언가요?》

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황국 신민〉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조선 사람의 정신을 뽑아 던지구 일본놈의 정신을 넣어 줘서 조선 사람을 일본놈으로 만들자는 게지. 정말 터무니 없는 수작이 아니냐.》

외조부는 쓴 웃음을 지은 후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 놈들은 조선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충실한 종으로 만들어서 소나 말처럼 부려 먹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고 무식쟁이로 만들 필요가 있었단 말이다. 그저 일본말이나 배워 주고 일이나 배워 주면 그만이라는 게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공립 보통 학교〉라는 것이란다. 거기에는 입학하는 첫날부터 일본 말을 써야 하구 우리 말은 통 못 쓰게 되여 있단 말이다. 그리구 우리 나라 력사는 쥐꼬리 만큼두 들을 수 없게 되여 있구.》

《일본놈의 말을 배우지 못 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놈의 말을 첫날부터 쓸 수 있을가요?》

《그러기 입은 다물구 손'짓, 몸'짓을 하면서 벙어리 시늉을 해야지. 눈을 뜨고도 못 보고 입을 갖고도 제나라 말두 못 하게 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냐.》

《우리 나라 력사는 왜 배워 주지 못 하게 할가요?》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전통과 문화 유산을 싹 없애 버리자는 게지.

생각해 봐라,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슬기롭고 용감하게 살어 왔니. 벌써 1,300년 전인 신라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되는 천문대인 〈첨성대〉를 만들어 놓고 천문을 연구했으며 70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 활'자를 만들어 인쇄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슬기로우냐. 그 뿐이겠니?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우리 나라를 처 들어 왔을 때에 을지 문덕 장군을 비롯한 우리 선조들은 침략군을 용감히 처물리치지 않았니, 그리구 그 후 〈거란〉 침략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를 치 들어 왔지마는 강 감찬 장군을 비롯한 우리 조상들은 놈들에게 쌀 한 알 물 한모금 주지 않으면서 용감히 싸워 물리쳤단다. 임진 조국 전쟁 때에두 그렇지… 일본 오랑캐들은 우리 나라를 삼켜 보려구 7년 간이나 침략해 왔지마는 리 순신 장군을 비롯한 우리 나라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용감히 싸워 끝내 승리하지 않았니.》

《그런 력사를 학교에서 배워 주면 모두 제놈들을 반대해서 일어 서겠으니까 못 배우게 하겠구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놈들은 조선 력사를 배워 주지 못 하게 하는거다. 그렇다구 우리가 앉아서 한탄이나 하구 눈물이나 흘려서는 안 되는 법이니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싸워야지.》

외조부는 약간 주먹을 떠시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는 데두 겨울 동안의 준비가 있어야 하구, 집을 지으려고 해두 터전을 튼튼히 다져야 하느니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구,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다시 바루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단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구 백성들을 묶어 세워야 한단 말이다. 청년 학도들을 애국의 사상으로 키워야지! 국운이 기울어지자 나라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인재 양성에 떨쳐 나섰지! 네 아버지가 강동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계몽 사업을 한 것도 뜻인즉 국운을 회복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였구, 우리 창덕 학교두 그런 의미로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니냐. 네 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와서도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거듭했는지!

〈한일 합병〉 직후에 관 공립 학교는 120교에 불과하였는데 사립 학교는 2,000여 교나 되였구 서당은 2만여 교나 되였단다.》

《그런데 이따위 책이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마음 대로 한다면야 무엇 때문에 그따위 책을 학생들의 손에 들려 주겠니. 그러니 놈들의 시선이 사립 학교에 집중되고 있단다. 트집을 잡아 가지고 사립 학교를 폐교시키려구 눈이 뒤집혀 있는데 교과서를 가지구 말썽을 일으킬 수 있잖겠냐. 우리는 놈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리용해야 한다. 사실은 우리 창덕 학교두 인가는 4년제밖에 받지 못 한 학교란다. 말하자면 5~6 학년은 비법적으로 하는거지.》

《그래서 보습반이라고 하는가요?》

《그렇다. 놈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보습반이란 명칭을 걸구 5~6학년 과정을 배워 주고 있단다. 시학이란 자가 자주 학교에 나와서 검열을 하는데 가끔 말썽을 부린단다. 그런데 그 놈들이 만들어 준 교과서를 소홀히 했다가는 학교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 한다. 물론 이 교과서에서는 별로 배울 것이 없겠지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언제나 명심해 들어야 하구 또 책을 많이 읽어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외조부는 말 없이 일어 나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외조부가 무엇 때문에 나가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외조부가 들어 오셨습니다.

외조부는 책 한 권을 원수님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 봐라. 꽤 읽을만 한지 모르겠다만.》

원수님은 책을 받아 뚜껑을 번졌습니다. 인쇄한 책이 아니라 붓으로 곱게 쓴 책이였습니다. 책뚜껑은 들 기름으로 저루었는데 노랗게 되여 있었습니다. 글'줄을 들여다 보던 원수님은 기쁨에 찬 눈으로 외조부를 바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글씨구만요.》

하고 원수님이 큰 소리로 말하자 할아버지도 원수님의 얼굴을 바라 보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알아 보는구나, 네 아버지가 중강진으로 떠날 때 떨구고 간 책이다. 꽤 읽을만 하냐?》

《읽을 수도 있고 뜻도 리해할 수 있어요.》

원수님은 몇 장 번져 보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아버지의 글씨만 보아도 무척 반가왔습니다.

원수님은 책을 번지다가 남 이 장군의 시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이 시를 보니 여섯 살 때에 만경대 할아버지에게서 《천자문》을 배우던 기억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때 할아버지는 원수님에게 남 이 장군의 이 시도 배워 주었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소리를 내여 읽었습니다.

백두산석은 마도 진이오
두만강수는 음마무라.
남아 이십 미평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부리오.

(白頭山石 磨刀盡
豆滿江水 飮馬無
男兒二十 未平國
後世誰稱 大丈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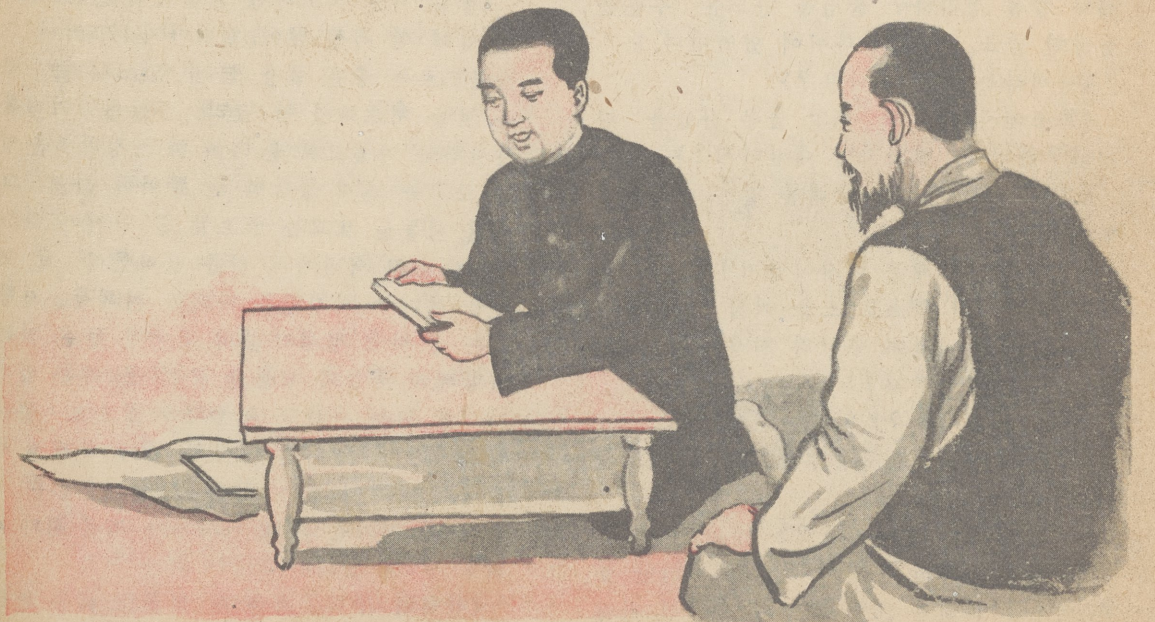
외조부는 수염을 내리 쓸며 원수님의 한시 랑송하는 모습을 사랑에 가득찬 눈으로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뜻을 한 번 새겨 보아라.》

외조부의 말씀이였습니다.

원수님은 큰 목소리로 뜻을 풀었습니다.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물도 말 먹여 다 말리리라
사나이 나이 스물에 나라 평정 못 한다면
누가 후세에 대장부라 하리오.》

《대장부의 기상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표현 되였느냐, 〈백두산 돌을 칼을 갈아 다 없

애고 두만강 물도 말 먹여 말리운다!〉 사나이 대장부의 포부가 그만이나 해야 하는니라.》

외조부는 계속 아래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장을 쳐다보시며 약간 무엇을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북방 개척을 방해하면서 우리 나라 북방을 침입하려는 녀진족을 물리치는 데서도 많은 공적을 쌓은 분으로 그 때에 병조 판서까지 오른 분이 아니냐.》

《병조 판서라는 게 뭡니까?》

《병조라는 건 봉건 사회의 륙조의 하나로서 군사에 대한 것을 담당한 나라의 제일 높은 행정 기관이란다. 말하자면 그 당시의 륙군이나 해군을 담당한 제일 높은 행정 기관이지.》

《륙조는 뭐냐요?》

《조정의 최고 행정 기관이지. 그것이 여섯 가지루 나뉘여 있었단 말이다. 벼슬아치들을 임명두하구, 누가 일을 잘 하는가를 조사두 하구, 표창두 하구, 떼기두 하는 리조, 호구를 조사하구 세금두 받구하는 호조, 교육과 과거 그리고 제사 같은 것을 맡은 례조, 군사 관계를 맡은 병조, 법률과 소송 그리고 형벌 같은 것을 맡은 형조, 길을 닦구 산과 강을 정리하구 물건을 만드는 부분을 담당한 공조, 이렇게 나뉘어 있었단다.》

《판서라는 것은 뭐냐요?》

《륙조에서 각각 제일 높은 사람을 판서라구한단다. 말하자면 대신이지!》

《그럼 병조 판서란 군대를 맡은 대신이구만요?》

《말하자면 륙해군 대신이였지! 그런 큰 어른이 간신의 참소로 스물 여덟 살이라는 피끓는 젊은 시절에 무참히 희생된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였지!》

《참소가 뭐야요?》

《남을 헐어서 웃사람에게 거짓말 보고를 하는 것이란다.》

《어째서 그렇게 할가요?》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높은 벼슬을 하려는 오랑캐 놈의 사상이 머리에 가득 들어 찼으니까 그렇지. 자고로 봉건 통치배들은 서로 헐고 뜯고 하는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하지 않았니. 임금이라는 등신은 나라와 백성의 형편은 살피지 않구 술과 계집에만 빠져 평창거리다가 국난이 일어 나면 옳은 말을 하는 충신을 잡아 죽이구 간신의 말만 듣다가 망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외조부는 가늘게 한숨을 짓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남 이 장군은 비록 오래 살지는 못 했지만은 한 평생을 보람 있게 살았지! 그는 장군으로서 쌓아 올린 업적도 크거니와 그가 남긴 이러한 시가들은 후세 사람들을 애국의 사상으로 가르치는데 얼마나 큰 힘을 내는 거냐. 시를 쓰려면 이렇게 힘이 솟구치는 시를 써야 하느니라.》

외조부는 약간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시를 몇 번 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읽고 또 읽어도 싫지 않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 힘이 솟군 했습니다.

《할아버지, 얼마나 공부를 하면 이런 훌륭한 시를 지을 수 있을가요.》

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좋은 시를 지으려면 물론 공부를 많이하구 남이 쓴 시를 많이 읽어야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좋은 글을 쓸 수 없느니라. 좋은 글을 지으려면 남 달리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 타야 하구, 정의로운 일을 보고는 크게 공감할 줄 알아야 하며 그릇된 행동을 보고는 증오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소위 책권이나 읽은 선비들이 글 쪼각을 쓴다구 하지만은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불 타는 심정이 없이 씌여진 글은 읽는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지 못 하는 법이야, 글 읽는 사람을 애국의 사상으로 불러 일으키지 못 한다면 그따위 시야 써서 뭘 하겠니. 그 책에 있는 시들이야말로 좋은 시들이다. 거기는 너의 아버지가 지은 시와 노래두 몇 수 있니라.》

《할아버지, 이 책을 다 읽구 드려두 괜찮아요?》

《잘 건사해라, 놈들의 눈에 띄였다가는 큰 봉변을 만날 게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또 다른 책을 줄테니 많이 읽어라. 너희들처럼 기억력이 좋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나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다. 젊어서 읽지 못 한 것을 늙어진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돈은 모아 두면 도적 맞을 수도 있고 쓰면 없어지지마는 지식을 머리에 많이 넣어두면 누가 빼앗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쉽게 고리를 풀 수 있단말이다, 알겠냐?》

《네!》

《그러니까 그 놈의 교과서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할 게 없지 않느냐 응? 허허허허.》

외조부는 수염을 흔들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교과서를 지내 무시해서야 안 되지! 우리 나라 속담에 〈지랄 외에는 다 배워 두라.〉는 말 대로 사람은 많이 알아야 하느니라. 문제는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써 먹는가에 있는 게지.》

외조부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수님의 대답은 모기 소리만하게 들릴락 말락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조선어 독본, 산술, 지리, 력사, 수신, 도화, 습자, 한문, 《국어》 등 교과서들을 책보에 싸 가지고 가운데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원수님은 다시 《국어》 책을 들고 표지를 뚫어지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어쩐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원수님도 외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국어는 이미 능통한 것이며 거기에 로씨야 말도 알고 영어, 독일어, 불란서어, 라틴어 그리고 일본 말도 알고 세계 각국의 말을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제 나라의 훌륭한 말을 두고 남의 나라 말을 더구나 원쑤놈의 말을 《국어》라고는 절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동안 표지를 들여다 보던 원수님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빙긋이 웃고 나서 주머니칼을 꺼냈습니다. 원수님은 《국어》라고 씌여 있는 나라국(國) 자의 테두리만 남기고 혹 혹(或) 자를 깨끗이 깎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입구자 한복판에 한일(一)자를 그었습니다. 멋진 날일(日) 자가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국어 독본》은 《일어 독본》으로 되였습니다.

원수님은 만족한 얼굴에 빙그레 웃음을 띄우고 그 책을 맨 밑에 넣고 책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시 책을 펴 들었습니다.

원수님은 많은 시편들을 읽어 나가다가 짧고도 아주 마음에 드는 김 지대의 시 한편을 발견했습니다.

나라의 걱정은 신하의 걱정이요,
아버지의 근심은 아들의 근심이라.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 위해 싸우면
충성과 효도를 함께 다함이로다.

원수님은 이 시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쩐지 원수님의 감정을 그 대로 노래한 것 같았습니다.

원수님은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혁명 동지들과 마주 앉아 밤 늦도록 이야기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베개에 의지하여 기침을 하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놈들에게 무참한 고문을 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빨리 커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놈들과 싸워야겠어!)

원수님은 이를 다구어 물면서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시를 계속 읽어 내려 가던 원수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툭 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쓰신 시로구나!》

원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며 마음 속으로 환호를 올렸습니다.

남천 초목도 눈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슬퍼하겠고
동해의 어열도 마음이 있으면
우리와 같이 슬퍼하리라

나라를 잃어 버린 우리의 민족
바다의 티끌 같이 떠서 다니나
잃었다고 슬퍼 말라 동포들이여!
우리 나라 회복할 날 머지 않으리.

시 끝에는 (고향을 떠나 중강진으로 가면서 김 형직)이라는 작은 글'발이 씌여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옛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동생 철주는 어머니가 업고, 원수님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멀고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등에 업히기도 하였고 아픈 다리를 이끌어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시에 노래를 붙여 흥얼흥얼 불렀던 것입니다. 어딘지는 똑똑히 기억할 수 없으나 그리 높지 않은 언덕 아래 큰 소나무 밑에서 쉬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증손이, 노래 배워 줄가?》 하며 아버지는 이 노래를 몇 번이고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때 원수님은 어째서인지 노래 부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아버지가 부르던 곡조를 잔잔한 목소리로 노래 불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똑똑히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은 여러 편의 시를 읽는 중에 자신도 한 번 그런 시를 써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그렇게 좋은 시를 쓸것 같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여 볼가, 그래서 내가 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내가 쓴 소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가, 주인공과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는 매력 있는 그런 글을 쓰면 얼마나 좋을가, 시인이나 소설가라야 별 사람은 아닐 거야. 책을 많이 읽고 자꾸만 써 보면 될 게 아닌가, 팔자에 타구나는 것은 아닐 게거든!)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니야, 작가도 좋지만은 체육가도 좋을 거야. 축구 선수두 좋구, 야구 선수두 좋지! 씨름이나 마라손 선수는 얼마나 좋을가, 그놈만 잘 하면 대'바람에 세계에 이름을 날리구 온 세계로 돌아 다니면서 보구 싶은 건 다 볼 수 있을 게 아니야!)

원수님은 이런 식으로 비행사도 생각해 보고 음악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그럴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님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작가나 비행사 그리고 체육가나 음악가두 좋지마는 그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 일본놈들을 쫓아 버리구 나라가 독립을 해야 돼! 그래야 작가두 될 수 있구, 체육가두 될 수 있구, 비행사나 음악가두 될 수 있어! 우선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하는 거야!)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 말을 기억합시다)

<글을 읽는 법은 과정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며 질질 끄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 너무 욕심부려 많이 읽으려

하지 말며 너무 빨리 읽어 넘기려고 서둘지 말라, 분량을 일정하게 정하여 매일 쉬지 말고 하자.>

(연암 박 지원)

동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손 명 직

나는 얼마 전에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해'살을 받아 유난히 빛나는 그 웅장한 모습을 우러러 보며 궁전에 이른 나는 왁작 떠들며 환성을 올리는 소리에 이끌리여 먼저 체육관으로 들어 갔습니다.

거기서는 어린이들의 배구, 롱구 경기들이 한창이였습니다. 천 명도 넘게 앉을 수 있다는 관람석은 벌써 구경하는 어린 학생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운 옷차림에 행복한 웃음을 담뿍 안고 공을 따라 웃고, 박수치고,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는 모습들이며, 름름한 몸매에 날씬한 체육복 차림을 한 꼬마 선수들이 번개처럼 날랜 동작으로 공을 다루는 모습들을 보며 나는 오래 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 했습니다.

라지오 텔레비존실에 가 보니 거기서는 앞날의 과학자들인 어린이들이 제법 라지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설비들로 꾸려진 자동차실, 모형 항공기 제작실, 물리, 화학 실험실, 그 어디에 가 보아도 어린이들이 까만 눈을 반짝거리며 제법 기계 기구들과 약품들을 솜씨 있게 다루며 실험 실습을 하느라고 옆에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피아노와 풍금, 가야금 등 여러 가지 훌륭한 악기들이 갖추어진 음악실, 무용실에서도 어린이들이 제 손으로 재롱스럽게 악기를 다루며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가슴이 부풀어 올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어린이들인가!)

나는 몇 번이고 입속으로 이런 말을 외웠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학교에 가 공부할 수 있고, 야영소와 아동 공원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또 이처럼 훌륭한 궁전에서 세상에 부럼 없이 배우며 자라는 동무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모두가 래일의 보

람찬 희망과 꿈을 안고 조국의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지식 있고, 몸이 튼튼한 조국의 꽃봉오리로 활짝 피여 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언제 어느 때 어린이들이 오늘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지만 먼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가난한 근로 인민의 아들딸들은 학교라고는 문앞에도 못 가 보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 왔습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은 궁전이란 다만 동화나 전설에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로동당 시대, 동무들의 소년 시절에 이르러서야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동무들에게 이처럼 크나큰 행복을 안겨 주셨습니까!

이 태산 보다도 높고 바다 보다도 깊은 배려와 사랑은 오직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과 원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건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무들이 조국'앞날의 희망이며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동무들이 훌륭히 배우고 억세게 자라야 조국 앞날을 믿음직하게 걸머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앞날을 멀리 내다 보시고 나라의 백년 대계를 세우시는 원수님의 넓고 깊은 배려를 우리는 《학생 소년 궁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느끼게 됩니다.

나는 평양 대극장에 못지 않게 훌륭한 학생 소년 궁전의 넓은 극장 무대 우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갖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소년단원 동무들을 보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아동단원 시절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 우리는 유격대원 아저씨들에게서 오늘의 행복한 사회주의 조국에 대하여, 오늘의 보람찬 궁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수님은 벌써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보람찬 미래와 오늘의 이 행복을 구상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수님의 위대한 구상은 오늘 동무들의 시대에 와서 활짝 펼쳐졌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도 우리 아동단원들은 원수님의 두터운 사랑과 배려 속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그 때 우리는 원쑤와 판가리 싸움을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아동단원들만은 근거지 내에서 제일 크고 좋은 집에서 따뜻한 솜옷을 입고 배고픈 줄 모르고 지내였습니다.

원수님은 그 어려운 싸움 속에서 식사도 제때에 못 하시여 시장'기를 느끼시면서도 맛있는 것은 근거지에 있는 아동단원들에게 보내 주셨으며 귀틀집에서 홑옷을 입으시고 지내시면서도 아동단원들에게는 두터운 솜옷과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하여 주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때에도 우리 아동단원들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김 일성 원수님의 뜨거운 어버이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원쑤와 판가리 싸움을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배우며 자랐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어떤 때에는 학교가 없어서 귀틀집에서, 때로는 한지에서 모래판에다 글을 쓰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열심히 배웠으며 유격대 아저씨들을 도와 일제와 싸윘습니다.

그러니 그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그러했지만 악기라는 것은 정말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처창즈 유격 근거지에 있을 때 우리 아동단에 하모니카 한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격대 아저씨들이 우리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일제 원쑤놈들과 피를 흘리며 싸워 얻어다 준 것이였습니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유격대 아저씨들에게서 하모니카를 받아 들고 기뻐하던 아동단원들의 모습이 선히 떠오릅니다. 이 하모니카를 우리 아동단원들은 지주, 자본가놈네 자식들의 피아노나 바이올린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다루었습니다.

그 때 우리 아동단원들은 하모니카 하나를 가지고도 모든 동무들이 불며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모니카를 가지고 노래와 춤을 배워 유격대 아저씨들과 근거지 인민들 앞에서 유희대의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의 이 한 개의 하모니카가 오늘은 얼마나 많은 피아노나 손풍금, 가야금으로 변하였습니까!

동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단원들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가요?

그것은 지주, 자본가놈들의 압제와 시달림에서 벗어나 모두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근심 걱정이 없고 서로 돕고 이끌며 모두다 자유롭게 일하고 배우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사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근심 걱정이 없고 누구나 배우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이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을 가져다 준 사회주의 제도와 당과 조국을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쳤을 때 바로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항일 빨찌산 투사들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는 언제 어느 때든지 목숨이라도 서슴지 않고 바치는 높은 혁명 정신으로 배우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제도를 빼앗으려는 원쑤놈들과 끝까지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미제 원쑤놈들과 그의 앞잡이 놈들이 있습니다. 이 원쑤놈들 때문에 남반부의 어린이들은 궁전은 고사하고 학교 문앞에도 못 가 보고 깡통을 차고 거리와 마을을 헤매고 있습니다.

배움의 길을 잃은 그들은 슬픔을 한탄하다가 스스로 어린 목숨을 끊는 눈물겨운 사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남반부의 어린 동무들은 간악한 미제 원쑤놈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있습니다.

남반부 인민들과 우리의 어린 동무들을 죽음에로 몰아 넣는 원쑤놈들은 우리의 행복한 사회주의 제도를 빼앗으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속히 남녘 땅에서 미제 원쑤놈들을 몰아 내고 박 정희 도당을 쓸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항상 남반부 어린 동무들을 잊지 말고 그들의 투쟁을 도와 주는 마음으로 공부 잘 하고 소년단 생활을 잘 하여 지식 있고, 교양 있고, 품행이 바르고, 몸이 튼튼한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야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학생 소년 궁전을 구경하고 나는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 오늘 이렇게 《소년단》 잡지를 통하여 몇 마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가사)

우리의 궁전 좋고 좋아라

① 해'빛 쨍쨍 비쳐 드는 장대'재 언덕
노래 속에 랄랄라 높이 솟은 집
마음껏 뛰놀며 어서 배우라
원수님이 지어 주신 사랑의 궁전

후렴; 아 — 학생 소년 궁전은 좋고 좋아라
넘쳐나는 이 기쁨 노래 불러요.

② 웃음꽃이 활짝 피는 장대'재 언덕
나래펴고 훨훨훨 높이 솟은 집
몸과 마음 굳세게 다져 가리라
시도 읊고 춤도 추는 배움의 궁전
(후렴)

③ 쌍무지개 곱게 비낀 장대'재 언덕
남쪽 향해 충충충 높이 솟은 집
미국놈과 싸우는 남쪽 동무들
어서 만나 함께 즐길 희망의 궁전
(후렴)

차 주성

새 학년도를 맞으며

로력 영웅 김 일완

소년단원 동무들!

따뜻한 새 봄이 돌아 오고 우리들의 즐거운 새 학년도가 시작되였습니다. 인민 학교를 졸업한 동무들은 중학생이 되고 그 밖의 동무들은 모두가 한 학년씩 올라 갔습니다. 새 교과서에 새 공책을 펼쳐 놓고 새학년도 첫 수업을 맞는 기쁨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동무들은 아마 모두가 새 학년도 첫 날부터 이 번 학년도에도 공부를 더 잘할 새 결심을 다졌겠지요.

우리 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나 첫 시작부터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새 학년도를 맞는 여러 동무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될가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몇 몇 최우등생 동무들의 례를 들어 몇 마디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양 모란봉 중 학교소년단 제 17 분단(인민반)에 조 계현 동무는 언제나 최우등생입니다. 나는 이 학생과 몇 해 동안 함께 생활 해 옵니다.

나는 그의 학습 도구들을 살펴 봅니다.

그는 새 학기 때마다 책과 학습장에 고운 종이로 새 뚜껑을 곱게 해 씌웁니다. 그리고 그의 필갑은 언제 봐도 곱게 깎은 연필, 지우개, 칼, 자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공부 시간에 지우개를 빌린다거나 연필을 깎는 일로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지요. 그는 학습 준비만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표를 세워 가지고 그 날 학습은 그 날에 어김 없이 한답니다.

조 계현 학생은 오늘 할 공부가 따로 있고 래일 할 공부가 따로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날 계획은 아무리 밤이 늦어도 꼭 학습하고야 자리에 눕는답니다. 그러니까 조 계현 동무는 숙제를 안 해 오는 일이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숙제 공부도 꼭 자기 힘으로 합니다. 만일 잘 모를 문제가 생기면 전 시간에 배운 과목을 완전히 리해할 때까지 공부를 다시 하고 숙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숙제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문제는 반드시 전 수업 시간에 배운 문제를 잘 알고야 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조 계현 동무는 숙제만 잘 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습과 예습도 매일 빠짐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어 같은 것은 배운 과목을 따로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산수는 배운 문제를 제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습도 잘 합니다. 예습을 하면 다음 날 배울 때 더 빨리 리해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자연 관찰과 실험 실습을 잘 하는 데서도 모범이랍니다.

나무'잎이 붉게 물든 작년 가을, 릉라도에 원족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는 동무들과 함께 돌도 주어 만져 보고 나무'잎도 살펴 보며 줄곧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무'잎이 가을에는 왜 붉어집니까? 그리고 왜 나무'잎이 떨어집니까?》 그런가 하면 쉴참에 대동강을 굽어 보다 말고 또 묻는 것이였습니다.

《선생님! 대동강에는 몇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까?》하고 말이지요. 그래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 모두 수첩에 적어 넣는 것이였어요. 이렇게 그는 무엇을 하나 보아도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는 일이 없습니다. 꼭 그 리치를 따져 알아 보고야 마는 것이 버릇처럼 되였습니다.

이런 습성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찰과 실험 실습을 통한 학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넓고 깊게 해 주며 앞으로 동무들이 자라서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며 기계를 다루고,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산 지식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새 학년도 초부터 모두가 자연 관찰과 실험 실습을 일상적으로 잘 하는 습관을 키웁시다. 새 봄을 맞아 움트는 풀'잎 하나, 발에 채이는 돌'부리 하나에 이르기까지도 무심히 스쳐 지나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이던 하나라도 알아 내려고 하는 그러한 학습 태도를 키워 나갑시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자면 교과서 외에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모란봉 중학교 중등반 2학년인 오 장룡 동무는 과외 독서에서 아주 모범입니다. 《소년 신문》이나 《소년단》, 《아동 문학》, 《소년 과학》 등을 빼 놓지 않고 읽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이면 아동 도서관을 자주 찾아 갑니다. 특히 방학 기간은 하루도 빠짐 없이 아동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을 비롯하여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아동 단원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제목이고 거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는 학생 소년 궁전에도 자주 갑니다. 학생 소년 궁전 도서실에서 책을 읽기 위해서이지요.

그는 요새도 매일 20～30 페지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동무들처럼 소설이나 동화, 옛'이야기 등 문학 책에만 매달리지 않고 과학, 력사, 지리, 도덕 등 여러 가지 부문의 책을 다 즐겨 읽습니다.

우리는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만큼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 어른들이 읽는 책을 뜻도 모르면서 마구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미 있는 책이라고 해서 어느 한 부문에만 치우쳐 읽는 것도 여러 가지 지식을 넓히는데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은 앞으로 커서 기사, 기수, 시인, 소설가, 비행사, 과학자, 발명가 그 무엇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초소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 일하게 되던 간에 지금 배우고 있는 인민반과 중등반 학생 시절에 배우는 과목은 다 알아야만 훌륭히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민반이나 중등반에서 배우는 학과목들은 그 누구나 다 알아야 할 초보적이며 일반적인 지식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어려서부터 어느 한 부문에만 치우쳐 공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름발이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로 발전된 사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언제 어느 때든지 당과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떳떳이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걷는 자만이 길을 정복할 수 있듯이 책을 많이 읽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과학의 높은 봉우리 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새 학년도 첫날부터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 공부를 더 잘 하며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실험 실습으로 배운 지식을 익혀 나갑시다.

그리하여 새 학년도에도 모두다 우등, 최우등생이 되며 소년단 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입시다.

김 현일

늘어선 가로등은 분홍'빛 뿌리고
하늘엔 애기별 방긋 웃는데.
평양 거리 아직은 해 비치기 전.
두리 둥둥 춤을 추며 솟는 둥군 해,
우리 궁전 제일 먼저 비쳐주네.

수천개의 거울을 벽에 달았나
우뚝 솟은 궁전의 맑고 맑은 창'가에
빤짝빤짝 노을이 눈부시게 불타네.

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원수님,
세상에 자랑할 큰 궁전을 또 지어 주셔,
해'님도 해'님도 너무 기뻐서.
아침마다 그 해'발 먼저 보내준다네.

북쪽을 그리는 뜨거운 마음들!

안 전엽

공화국 북반부 소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마음껏 공부하며 뛰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반부 소년들은 참말로 무서운 고통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녘 땅 인민들과 어린이들은 공화국 북반부를 한 없이 동경하고 있으며 하루 속히 통일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남녘 땅 어린이들이 조국의 통일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를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 알아 보기로 합시다.

신 금단 언니를 만나고 싶어요

얼마 전 서울에서 있은 일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진명 녀자 고등 학교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는 이 학교 학생들이 롱구 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련습을 하다가 갑자기 순자가 롱구장에서 물러 났습니다. 그는 아침을 굶고 왔기 때문에 배 고파서 더는 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숙희와 영옥이 그리고 다른 동무들도 순자 곁에 다가 서더니 저들도 기운이 없어 못 하겠다고 하면서 모두 둘러 앉았습니다.

그 때, 교문 쪽에서 경선이가 뛰여 오면서 《얘들아! 이것 봐, 멋들어진 글이 여기에 실렸어!》

《그게 뭔데!》

《어서 이리 와 신문을 펼쳐…》

경선이가 가지고 온 신문에는 가네포에서 신 금단 선수가 녀자 400 메터를 51 초 4로 달렸고 800 메터를 1 분 59 초 1이라는 번개와 같은 속도로 달려 세계 신기록을 두 개나 세웠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야! 정말 통쾌하구나!》

《얘들아, 이 기록은 남조선 남자 선수 기록과 비슷한 거야, 뭘 아니?》

이 학교 륙상 선수로 꼽히는 경선이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신 금단 언니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린 선수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1 등인 신 금단 언니는 어떻게 생겼을가…》

《한 번 만나 보면 얼마나 좋겠니?…》

《만나서 달리는 법도 배우고… 또 어떻게 련습했기에 그렇게 세계에서 으뜸 가는 선수가 되였는가고 물으면서 이야기도 해 보았으면…》

운동장에 모인 동무들은 모두 신 금단 언니에 대한 생각에 잠기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신 금단 언니를 만나고 싶다는 심정을 담은 편지를 언니에게 하자!》

이처럼 그들은 지금 두 개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공화국 륙상 선수 신 금단 언니를 무척 만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원쑤인 미국놈 때문에 그들은 편지도 할 수 없으며 만나볼 길이 가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철남의 불 같은 마음

대구 시내의 어느 중학교 2 학년 지리 시간이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조선의 철도에 대한 절을 전부 마칩니다. 학생들!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경의선을 타고 북쪽으로 간다면 몇 시간이나 걸려야 맨 끝 정거장에 가 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맨 끝 정거장이 어딘 데요?》

《그것은 경기도 문산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맨 북쪽 끝 정거장은 신의주가 아닙니까?》

학생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자 선생님은 한숨을 지으면서

《그것을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가르쳐 줄테니 나에게 찾아 오시오.》라는 말로 지리 시간을 끝맺었습니다.

저녁에 선생님은 지리 시간에 질문을 하던 철남이네 집에 갔습니다.

게딱지 같은 토굴'집에 들어 서니 며칠 전에 대구 역에서 짐을 나르다가 무거운 짐짝에 치워 일'자리를 잃고 누워 있는 아버지가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아버지 사이에는 철남이가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는 이야기와 철남이의 지리 시간에 있은 질문을 실마리로 해서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철남이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일 철남이가 공화국 북반부에 있는 어머니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겠소…》

철남이와 그의 아버지는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미국놈들한테 끌리여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철남이는 어머니와 헤여졌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숨'결은 차차 높아졌습니다.

철남이는 앓아 누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돌보았으나 아버지는 돈이 없어 약 한 첩 못 써 보고 돌아 가셨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공화국 북반부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날날이 들은 철남이는 새로운 결심을 하였습니다.

돌아 가신 아버지를 공동 묘지에 묻고 며칠 후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대구에서 대전을 지나 서울에 도착한 그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허리에는 책가방 대신 깡통이 차례졌고 배는 몹시 고팠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 철남이는 이러한 생각 끝에 서울을 떠나서 다시금 북으로 북으로 발'걸음을 옮겨 개성에 있는 송악산이 멀리 바라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바로 저 산 밑에 선생님이 말하던 개성 소년 회관이 있겠지…)

그는 새로운 힘이 용솟음쳤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곳에서 순찰하던 미군놈이 철남이를 붙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던 철남이, 공화국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그처럼 동경하던 철남이의 앞길은 가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두말 할 것 없이 미국놈들의 채찍에 얻어 맞고 구두'발에 채워 쓰러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깡통을 차고 또다시 남조선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였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엾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소년단원 동무들! 남조선 소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불행과 고통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미국놈들 때문입니다.

미국놈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야만 철남이와 같은 비참한 남녘 땅 어린이들도 북반부 어린이들처럼 행복하게 공부하며 뛰놀 수 있습니다.

통일의 그 날을 앞 당기기 위하여 소년단원 동무들은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모두다 모범이 됩시다.

편집부는 아래에 한 남조선 소녀의 시를 싣습니다.

이 시는 바로 4 년 전 1960년 4월 19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때려 부신 4월의 용사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따르겠다는 소녀의 심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하나만의 심정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박 정희 도당은 4월의 용사들이 피로써 얻은 모든 것을 가로 채서 리 승만 때보다 더 인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어린이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

오빠와 언니의 뒤를 따르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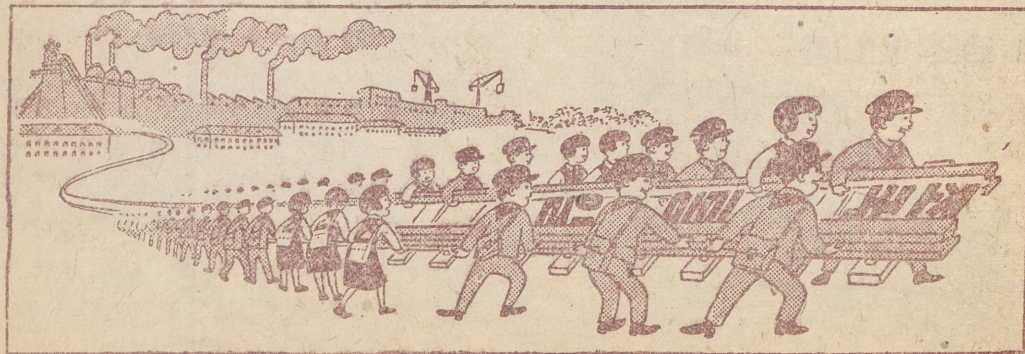
아침 하늘이 밝아 오면은
달음박질 소리가 들려 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 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 들였어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적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 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 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남조선 서울 수송 국민 학교에서 공부하던 강 명희 소녀의 시,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에서)

정덕이의 뉘우침

개성시 동현 중학교 단 13 분단에서

본사 기자 연 일 덕

지난 해 2 학기 첫날 아침이였습니다.

《야! 책상, 걸'상이 새거구나. 아마 방학 동안에 로동자 아저씨들이 고쳐 만들어다 주었을 거야…》, 《선생님들이 고쳐 준 건지도 몰라…》

분단 동무들은 이런 말을 주고 받으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알른알른하게 빛이 나는 책상과 걸'상에는 번호와 이름까지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졸업반 형님들이 방학 간에 저희들이 공부하던 책상과 걸'상을 새로 먹칠도 하고 니스칠도 하여 동생들이 공부 잘하라고 넘겨 준 것입니다.

이 날 분단 위원장 복철이는 분단 위원들과 의논하고 졸업반 형님들과 한 자리에서 분단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이 졸업반 형님들의 모범을 따라 모두가 졸업할 때까지 책상, 걸'상을 깨끗이 거두게 하자고 해서입니다.

그런데 소년단실에서 분단의 하루 사업을 총화하고 분단 동무들이 다 돌아 간 뒤에 책가방을 가지러 교실에 들어 선 복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정덕이의 책상 앞 모서리에 동그란 구멍이 파져 있지를 않겠습니까!

복철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졸업반 형님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섭섭해 할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그 길로 정덕이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어머니만이 계시고 정덕이는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정덕이가 저지른 잘못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그에게 욕을 하시면 어쩌나 해서 꾹 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덕이가 돌아 오면 제가 왔댔다고 그래 주세요.》 하고 그는 그 달음으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복철이는 뚫어진 책상 구멍이 자꾸만 생각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녁밥을 먹을 생각도 않고 집에 있는 톱과 마치, 대패를 가지고 학교로 뛰여 갔습니다.

복철이는 누가 알세라 조용조용히 나무를 깎아 구멍에 맞추고 대패로 민 다음 먹칠까지 곱게 하여 놓았습니다.

복철이가 땀을 흘리며 책상 구멍을 메우고 학교 문을 나섰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운 때였습니다.

이제야 자기 할 일을 찾아 했다고 생각한 복철이는 마음이 흐뭇해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학교에 나온 정덕이는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글쎄 제가 뚫려 놓았던 책상 구멍이 밤사이에 깨끗이 메워지고 먹칠까지 곱게 칠 해진 것이 아니겠어요. 정덕이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누가 책상 구멍을 메워 놓았을가?) 정덕이는 종일 량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누구에게도 자기 잘못을 말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날 졸업반 형님들과 한 자리에서 분단 모임이 열리였습니다.

졸업반 차 주식 형님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상, 걸'상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님들이 책상과 걸'상을 아끼고 사랑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분단 동무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지금 정덕이가 공부하는 책상에서는 승일이와 석균 형님들이 공부했답니다. 처음에는 그 책상도 인민반 어린 동생들이 숱한 칼'자리를 내서 몹시 어지러웠답니다. 그렇지만 자진해 맡아 나선 형님들은 그것도 대패로 밀고 먹칠을 한 다음 매일 잘 닦아서 멋진 새 책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랍니다.

졸업하고 나갈 때까지 모교에 있는 책상, 걸'상을 모두 새것으로 고쳐 놓겠다는 형님들의 불타는 마음은 아무리 어지럽던 책상도 깨끗이 만들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졸업반 형님들이 모교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책상, 걸'상을 애호하는 것만이 아니였습니다.

방과 후를 타서 졸업반 형님들은 《끄마영사기》, 《탁상 축구판》, 《탁상 혹케이》, 《당구판》 등 20여 종의 유희 오락 기구를 만들어 동생들의 놀음'감으로 선물하였습니다.

주식 형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단 동무들은 형님들처럼 학교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할 줄 몰랐던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뉘우쳤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졸업반 형님들처럼 책상, 걸'상을 사랑하며 공부를 더욱 잘 해서 형님들의 사랑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졸업할 때까지 이 책상, 걸'상을 소중히 다루었다가 동생들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복철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덕이는 줄곧 고개를 들지 못 했습니다.

분단 모임이 끝난 뒤에 정덕이는 복철이를 찾아 갔습니다.

《복철아, 너무 근심을 끼쳐서 미안해.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 나는 쓸 데 없이 깎뚝장난을 자꾸만 하기 좋아하는 버릇이 있어 어제 새로 산 손칼로 장난을 하다가 그만 잉크병 세우개를 팠댔어. 용서해.》

《정덕아! 너무 근심 말어. 이제부터라도 책상, 걸'상을 깨끗이 거두면 되지 머…》 복철이의 친절한 마음에 감동된 정덕이의 눈에서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분단 위원장은 분단 기수와 함께 봄날의 즐거운 행군을 떠나려고 송악산 답사를 끝내고 어두울 무렵에 돌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 공원 옆을 지나던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로등 빛이 새여 드는 공원 안에서 두 소년단원이 무엇인가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글쎄 정덕이와 순길이가 마치와 못을 가지고 나와 공원의 의자를 하나 하나 살피며 삐걱 소리가 나는 곳에 못을 박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철이는 너무도 기쁘고 반가와서 달려가 그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도와서 6 개의 공원 의자를 고쳐 놓고 밤이 퍼그나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두 동무

—함북도 청진시 포항 구역 수원 중학교
제 17 분단에서—

본사 기자 김 준 규

쉬는 시간이였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갔던 회준이는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교실에 들렸다.

어느 앤지 창'가에 마주 서서 운동장에서 춤 추고 노래하는 분단 동무들을 물끄러미 바라 보고 있었다.

《넌 왜 나가 놀지 않니?》 하고 회준이는 무심코 분단 일지를 책상 안에 넣으며 물었다.

흠칫 놀라며 돌아 서는 것을 보니 얼마 전에 일본에서 돌아 온 김 제수 동무였다.

《…》 제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회준이네 분단에 온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그는 서먹서먹해 하며 동무들과 잘 휩쓸며 놀지 않았다.

(아직 우리 말과 글을 잘 모르니까 그럴 거야.) 하는 생각이 퍼뜩 든 회준이는 제수를 도와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제수는 공부 시간에도 우리 말과 글을 잘 몰라 여간만 애타하지 않았다.

회준이는 분단 위원들과 의논하고 분단 위원회를 열었다. 분단 위원들은 제수를 도와 주는 일을 분단 위원장인 회준이가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

제수는 산수 시간에는 좀 활기를 띠였지만 다른 시간에는 몹시 힘들어 하였다. 산수는 우리 말과 글을 잘 몰라도 문제를 학습장에다 써 가지고 자기 힘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학, 력사, 지리 학습은 매우 힘들어 했고 다른 동무들보다 어방 없이 뒤떨어져 있었다. 이러니 자연 아이들 속에 휩쓸리지 못 하는 것이였다.

회준이는 제수를 도와 나섰다. 그는 우선 제수의 학습부터 도와 줘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집으로 찾아 갔다. 제수는 회준이가 찾아 갈 때마다 무척 반가와 하였다. 회준이는 한참 놀다가는 우리 말 교과서를 펼쳐 놓고 하나 하나 배워 주기 시작하였다.

책에 쓴 글을 찾아 몇 번씩 발음시켜 보고는 방안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단어를 대주기도 하였다.

책상, 걸'상, 거울… 제수는 하나 하나 우리 말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는 우리 말과 글을 빨리 배우려고 무척 애썼다. 하루 저녁은 회준이가 제수네 집에 찾아가니 부엌으로 들어 가는 문에 《어서 들어 오십시오.》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회준이가 어제 배워 준 말이였다. 밖에서 들어 올 때마다 읽으려고 써 붙인 것이였다. 방안에 들어 서니 제수는 방안에 있는 물건마다에 이름을 써 붙이고 회준이가 곁에 온 줄도 모르고 떠염떠염 외우고 있었다.

회준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제수를 도와 주었다. 하루는 반실에서 돌아 와 밤늦게 공부하다가 거리로 데리고 나왔다.

전등'불 휘황한 밤'거리로는 꼬리를 물고 자동차가 달리고 멀리 제철소 쪽에서 용광로의 불'빛이 번쩍번쩍 하였다. 거리거리의 건설장 층층 높은 곳으로는 불로크가 쉴 새 없이 올라 가고 용접봉의 불꽃이 꽃보라처럼 퍼졌다.

회준이는 조국의 이 아름다운 밤'거리를 두고 제수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회준이는 손으로 허공에 그림도 그리며 몸짓도 하면서 알아 듣기 쉽게 말하였지만 제수는 잘 알아 듣지 못 하였다. 회준이는 몹시 안타까왔다.

(무엇 때문에 제수는 조선 소년인데 조선 말을 잘 알아 듣지 못 하는가.)

회준이는 불쑥 이런 생각을 하였다. 금시에 일제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바로 그 놈들 때문에 제수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사랑하는 조국 땅을 떠나 산 설고 물 설은 일본 땅에 끌려 가 갖은 천대와 고통을 받아 오지 않았는가.)

생각에 잠겨 걷고 있던 회준이는 제수의 손을 꼭 쥐며 말하였다.

《제수야, 내 너를 끝까지 도와 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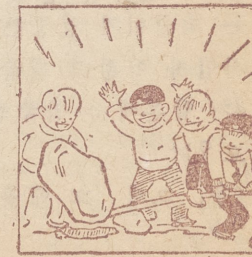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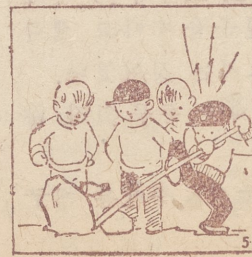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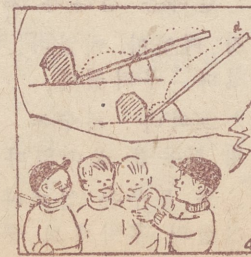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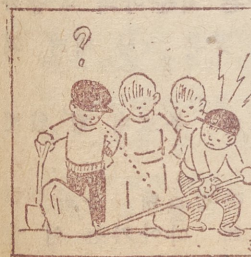
회준이는 제수를 힘껏 돕는 것이 원쑤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회준이는 방과 후이면 제수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화보나 그림책을 빌려 가지고 하나 하나 설명하여 주었다. 학교에 와서도 쉬는 시간이면 회준이는 그림책을 펴 놓고 제수와 나란이 앉아 이야기하였다. 제수는 모국어를 하나 하나 깨닫기 시작했고 조국의 소중한 모든 것을 차츰 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회준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선생님과 의논하고 김책 제철소 리 분섭 로력 영웅 아저씨와의 상봉 모임도 가졌다.

공업, 농업 전람관도 견학하였다. 때로는 바다'가에 데리고 나가 쾅쾅 기슭을 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하였다. 회준이는 조국의 귀중한 모든 것이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피로써 찾은 것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석 달이 흘렀다. 제수는 우리 말로 말할 수 있게 되였고 문학 교과서를 읽고 그 뜻도 알 수 있게 되였다. 그는 다른 과목도 따라 잡았다. 제수는 좋아하였다.

이런 때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짬만 있으면 제수에게 노래도 배워 주고 춤도 배워 주었다.

제수는 차츰 활기를 펴고 동무들과 함께 뛰놀았다. 이런 제수를 보는 회준이는 무척 기뻤다.

(만화)

그러면 어느 날 두 번째 시간이였다. 제수가 무심'결에 잉크병을 꺼내여 마개를 열어 보니 아침에 조금 밖에 없던 잉크가 넘치듯 차 있었다.

(누가 한 일일가?)

《네가 잉크를 넣었니?》 제수는 함께 앉는 기복이와 뒤'자리에 앉은 회준이에게 물었다.

《아니.》

《아니.》 두 동무의 대답은 똑 같이 이러하였다.

전 시간에 회준이는 제수가 잉크가 적어서 병을 기울이고 펜을 찍는 것을 보고 자기의 잉크를 더 딸아 넣어 주었던 것이다.

(참 좋은 동무들이야.)

제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수업을 받았다.

이 날 집으로 돌아 오며 제수는 회준이네 분단에 온 후의 일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제수는 동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이런 훌륭한 조국의 동무들 속에서 공부하는 자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다.

이 날 저녁은 제수가 회준이네 집에 놀러 떠났다.

그가 회준이네 집 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아버지, 번쩍번쩍 빛난다는 걸 일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그건 알아서 뭘 하자고 그러니?》 아버지는 회준이가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이였다.

《저 일본에서 귀국한 제수 동무 있지 않아요?》

《음, 그래 그 애를 도와 주려는 게구나…》

이렇게 회준이와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

가 번갈아 들려 왔다. 아버지는 회준이를 가륵히 여기시고 오랜 기억을 더듬어 보시는지 잠시 다음 말을 잇지 못 하셨다.

(저 앤 날 배워 주려고 집에 와서도 이렇게 애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제수는 발'길을 돌렸다. 오늘 밤만은 푹 쉬게 하고 싶었다.

래일은 즐거운 야영의 길을 떠나는 것이니…

× ×

경치 좋은 주을 온천에서 야영 생활을 끝내고 돌아 오는 제수의 얼굴에는 그냥 땀이 흘렀다.

《너 힘 든 거구나. 배낭을 벗어.》

《힘 들지 않아, 그만 둬.》

회준이는 억지로 제수의 배낭을 벗어 메였다.

얼마쯤 걷다가 제수는 회준이의 배낭까지 빼앗아 메였다. 해'빛은 그냥 내려 쬐였다. 무더웠다.

그러나 제수는 노래 부르며 힘 있게 발'걸음을 옮기였다.

두 동무는 언제나 다정스레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해 나아가는 이 즐거운 행군'길을 걷고 또 걸을 것이다.

학습 문제 풀이

【 학습 문제 1 】

자연 (인민반)

우리는 물이 없이 하루도 지내기 어렵습니다.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문제〕

① 물은 어떤 데 리용됩니까?

② 홍수는 왜 일어 납니까?

③ 물에 만약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④ 물이 차질 때와 더워질 때 성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 학습 문제 2 】

산수 (중등반 1 학년)

겉모양이 똑 같은 8 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 개는 동으로 만든 고리이며 1 개는 동으로 만든 고리가 아닌데 동으로 만든 것보다는 좀 가볍습니다.

저울로 두 번 이상 달지 말고 동으로 만들지 않은 고리를 찾아 내십시오.

【 학습 문제 3 】

물리 (중등반 2 학년)

메스실린더에 들어 가지 못 할 만큼 큰

《학습 문제 풀이》 해답

학습 문제 1

① 물은 사람과 동식물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하며, 논밭을 적시고 전기를 일구며, 공장의 기계를 돌리며, 떼'목이나 배를 띄워 물건을 나르는 데도 리용됩니다. 그리고 화학 공업에도 많이 쓰입니다.

② 산에 나무가 적으면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가 일어 납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치산 치수와 관개 공사를 잘 하여 가물과 홍수를 막아 내고 있습니다.

③ 물에 넣은 소금은 녹아서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즉 고체가 액체로 변하였을 따름입니다.

④ 차질 때에는 체적이 작아지고 더워질 때에는 체적이 커집니다. 그리고 섭씨 령도 이하로 내려 가면 고체인 얼음으로 되며 섭씨 100도 이상 되면 기체인 증기로 변합니다.

학습 문제 2

먼저 저울의 량 접시에 임의로 3 개씩의 고리를 올려 놓는다. 이 때 균형이 유지되면 저울에 놓치 않은 2 개 중에 어느 것이 가벼운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량 쪽에 올려 놓아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곧 알 수 있다. 만일 3 개씩 올려 놓았을 때 저울이 기울어진다면 그 중 가벼운 쪽의 고리 3 개 중 어느 두 개를 량 접시에 놓고 달아 보면 알 수 있다.

학습 문제 3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은 작은 그릇을 넣고 거기에 체적을 재려는 물체를 넣으면 그 물체의 체적과 같은 량의 물이 넘어나 큰 그릇에 담길 것이다. 다음에 넘어 나온 물을 메스실린더로 재면 된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체적을 알아 내는 법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 학습 문제 4 】

지 리 (중등반 2 학년)

아세아주의 경계는 구라파주와는 우랄 산맥, 우랄강, 지중해와 깝까즈 산맥으로 되여 있고 아프리카주와는 파나마 운하로 경계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

① 우의 문제에서 아세아주의 경계가 정확하다고 봅니까?

② 아세아주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③ 아세아주에서 큰 반도는 어떤 반도들입니까?

④ 아세아주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과 봉우리를 말하시오.

⑤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 학습 문제 5 】

식 물 (중등반 2 학년)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는 유익한 식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있는 이 식물 자원을 잘 보호하고 리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림을 더 많이 조성해야 합니다.

경제림에 속하는 식물들을 부문별로 알아 보고 두 개 이상씩 다음의 표 대로 기입해 보십시오.

《학습 문제 풀이》해답

학습 문제 4

① 구라파와는 우랄 산맥, 우랄강, 까스비해와 깝까즈 산맥과 경계를 짓고, 아프리카주와는 스에즈 운하와 경계를 짓고 있다.

② 16억.

③ 인도지나 반도, 인도 반도, 아라비야 반도, 소아세아 반도, 조선 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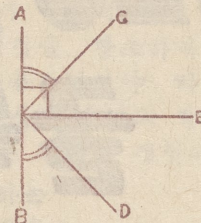
④ 히말라야 산맥, 주무랑마봉 (8,882 메터)

⑤ 남부 월남. 라오스.

학습 문제 5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7 개년 계획 기간에 30만 정보의 섬유 제지림과 20만 정보의 유지림을 조성하게 된다.

구 분	식물명	리용하는 부문	어디에 쓰이는가	비고
실과 종이를 얻어 낼 수 있는 식물	노박덩굴 피나무	껍질 〃	실, 솜대용 바'줄, 종이	
나물로 리용하는 식물	고사리 도라지 참나물	줄거리, 잎, 뿌리 잎	나물 나물 김치, 국거리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잣나무 호두나무 가래나무	종자(잣) 종자 〃	먹는 기름 〃 〃	
산과실을 얻는 식물	다래 머루	열매 〃	술, 쨈, 엿 과실, 통조림	
약으로 쓸 수 있는 식물	당귀 깽깽이풀	뿌리 〃	냉병, 강장제 눈약, 건위약	
물'감을 대신하는 식물	참나무 밤나무	껍질 〃	회색 물'감 밤색 물'감	
농약을 만들 수 있는 식물	할미꽃 애기똥풀	뿌리 잎	해충 구제 〃	

№	구 분	식물명	리용되는부문	어디에 쓰이는가
	실과 종이를 얻는 식물			
	기름을 짜는데 리용되는 식물	잣나무	씨(잣)	기름 (식용유)
	산과실을 얻는 식물			
	물'감을 대신 하는 식물			
	농약으로 쓰이는 식물			
	약으로쓰이는식물			

【 학습 문제 6 】

기 하 (중등반 3 학년)

다음의 그림을 보고 정리 3 개를 성립시켜 보십시오.

【 학습 문제 7 】

화 학 (중등반 3 학년)

얼음을 물에 담아 따뜻한 곳에 두면 고체 상태로부터 액체 상태로 됩니다. 이 현상을 분자 운동으로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며 어떤 현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학습 문제 풀이》해답

학습 문제 6

정리 3 개를 얻을 수 있다.

① 직선 상의 임의의 점에서 수선과 두 개의 사선을 그었을 때 직선과 사선이 만드는 각이 같으면 사선과 수선이 만드는 각도 같다.

② 한 각의 여각이 다른 직각에 대한 여각과 같다면 그 두 각은 같다.

③ 한 직선 상의 임의의 점을 정점으로 하는 네 개의 각 가운데서 량끝으로부터 2 개씩 각이 같으면 각을 구분하는 가운데 직선은 주어진 직선에 수직이다.

학습 문제 7

고체 상태의 얼음이 액체 상태의 물로 된다는 것은 물리적 현상이다.

얼음 안에서 분자들은 일정한 자리에 질서 있게 자리 잡고 있다. 매개 분자들은 작은 운동만을 하고 있던 것이 온도를 높이면(0°c 이상) 분자의 운동은 커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며 얼음의 질서 있는 배렬은 흩어지면서 액체 상태로 된다.

독자들에게

소년단원 동무들!

편집부는 동무들의 잡지《소년단》을 더욱 재미 있게 만들기 위해 동무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무들이 본 것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좋았습니까? 동무들이 보고 느낀 점들과 의견들을 많이 보내 주기 바랍니다.

보낼 곳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민청 출판사
《소년단》 편집부

120 메터 굴뚝 우에

—평양 화력 발전소 120 메터 굴뚝에 깃든 한 민청원 형님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최 죽산

지난 해 5월이였습니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다부지게 생긴 한 민청원 형님이 평양 화력 발전소 민청 위원회를 찾아 왔습니다.

《저를 제일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하고 졸라대는 그는 평북 운산 공구 공장에서 일하다가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장에 탄원해 온 민청원 채 룡호 형님이였습니다.

형님은 소원 대로 어렵고 힘든 부문인 연공(높은 곳에서 일하는 로동자)으로 일하게 되였습니다.

형님이 연공으로 일하게 된 지 석 달이 되는 지난 해 8월, 작업반 앞에는 발전소 보이라의 120 메터 굴뚝을 쌓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섰습니다.

당에서는 수풍 수력 발전소에서 일쿠는 전기의 절반 이상(40만 kw)이나 일쿠는 평양 화력 발전소의 일부 공사를 작년 말까지 끝내고 금년부터는 우선 5만 kw의 제 1 호 발전기에서 전기를 일쿠게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화력 발전소의 심장부를 이루는 보이라 공사와 함께 120 메터의 굴뚝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작년 말까지 쌓아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굴뚝을 쌓게 되는 형님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기술 협의회가 열리였습니다. 우 종원 아저씨를 비롯한 여러 형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힘만 합친다면 못 해낼 일이 없으니 무슨 묘책을 생각해 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저씨들은 120 메터나 되는 큰 굴뚝을 불과 넉 달 동안에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보통 때처럼 나무로 발'대를 매고 120 메터의 굴뚝을 쌓자면 2 년은 실히 걸려야 하는 것이였습니다.

(발'대목을 쓰지 않고 굴뚝 쌓는 무슨 좋은 방법은 없을가?) 언제나 무슨 일에서든지 당에서 내놓는 일이면 끝까지 해내려는 책임성이 높으며, 또한 새것을 생각해 내기 좋아하는 형님은 수십 년간을 굴뚝 쌓는 일만 해 오신 할아버지들을 찾아 가 의논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들도 역시 무슨 다른 묘책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형님은 매일 직장에 오고 갈 때마다 눈에 뜨이는 보이라 굴뚝들을 바라 보며 생각하기도 하였고 도서관에 찾아 가서 굴뚝 쌓는 기술에 대해 쓴 책이란 책은 다 뒤져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신통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 오던 형님은 어느 공장 굴뚝 우에 꽂혀 있는 피뢰침을 보자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온 형님은 진흙과 저'가락으로 굴뚝 모형을 만들고 되든 안 되든 생각 나는 대로 도면을 그려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님은 밤 새워 그린 도면을 가지고 당 위원회를 찾아 갔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생각했소.》당 위원회에서는 몹시 기뻐하시며 형님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 기봉, 화전 등 민청원 형님들이 함께 연구하도록 붙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 기술 협의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형님은 끝내 발'대목을 쓰지 않고 굴뚝을 쌓는 《승강식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작업장에 모여 시운전을 기다렸습니다. 형님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가다듬고 권양기에 힘 있게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와르릉 와르릉》 하고 《승강식 발판》은 1 메터, 2 메터 올라 갔습니다. 《승강식 발판》이 5 메터 정도 올라 갔을 때였습니다. 《딱》 하고 축이 부러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승강식 발판》은 땅에 곤두박히고 말았습니다. 회전틀의 압력에 축이 견디여 내지 못 했던 것입니다. 순간 형님의 얼굴은 재'빛으로 변했습니다.

경험 있는 연공들과 기술자들 중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이니 그만 두자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땅에 박힌 《승강식 발판》을 바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형님의 눈 앞에는 흘러 간 지난날의 가지 가지 일들이 안겨 왔습니다.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태여나 학교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던 일,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미국놈들의 폭격을 당해 후퇴하던 가족들과 헤여져 혼자 울고 있을 때 후퇴하던 인민 군대들이 강계까지 데리고 와서 학원에 보내 주던 일, 전후에는 당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하여 폭격에 희생된 줄로만 알았던 집안 식구들을 찾게 된 일, 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 갔습니다.

(당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 바쳐 일하겠다고 결심한 내가 이만한 곤난 앞에 주저앉다니) 형님의 머리에는 《청년들은 항상 어떠한 일에서나 두려움을 모르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두에 서야 하며 미래의 주인답게 새것을 창조하며 낡은 것을 버리는 데서 용감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은 절대로 경험과 기술만을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뒤좇아 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형님은 첫 실패에 락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의 부름에 보답해야 한다.)

다시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고 달라붙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날은 진흙과 저'가락을 가지고 밤새 씨름을 하고 나면 날이 밝는 줄도 몰랐습니다. 형님은 도면을 그려 보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설계 연구소를 찾아 가기도 했고 건설 대학을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초중 밖에 졸업하지 못 한 형님에게는 실지 발판 설계에 필요한 지식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당에서 내놓은 기일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언제 한가하게 기술 학교와 대학교 교재를 다 공부하여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까.

형님은 책을 들고 길을 걷다가도 모를 것이 있으면 길 가는 대학생들을 붙들고 물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형님이 백 열 두 번째의 기술 협의회에 참가하고 집으로 돌아 온 날이였습니다. 굴뚝 모형을 그려 가며 연구하던 형님은 문득 초급 중학교 물리 교과서에서 압력에 대한 것을 배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기계의 다리에 이렇게 압력을 받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도면을 그려 가던 형님은 너무도 기뻐 환성을 올렸습니다. 형님의 피눈물 나는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연구하여 오던 《승강식 발판》이 드디여 성공하였다는 기쁜 소식은 삽시간에 온 공장에 퍼졌습니다.

120 메터 굴뚝 공사장에서는 날마다 혁신이 일어 났습니다. 발'대목을 매고 쌓으면 80여 명이 하루에 겨우 1 메터도 쌓기 힘들다던 일을 40 명으로써도 쉽게 2.5 메터씩 쌓게 되였습니다.

당의 지시와 결정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곤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형님의 꾸준한 노력은 드디여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흔드는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민청원들과 형님은 용맹한 《수리개》인양 《승강식 발판》을 타고 맑고 푸른 민주 수도의 창공을 훨훨 날으며 모진 비'바람과 짙은 안개, 어두운 밤을 밀어 가며 시간을 앞당겨 기적의 탑을 쌓았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눈이 나쁜 형님을 걱정해서 얼마 동안 다른 작업에 돌리기로 했을 때에도 형님은 병원까지 찾아 가서 보호 안경을 해결해다 끝내 120 메터 굴뚝 공사의 마지막 날까지 일하였습니다.

120 메터의 굴뚝을 쌓는 나날은 헐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낮을 이어 가며 비 오는 날이고 바람 부는 날을 가리지 않고 형님은 오직 당 앞에 맹세한 날까지 이 굴뚝 공사를 끝내기 위해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였습니다.

10월 30일, 드디여 첫 120 메터의 굴뚝이 완공되였습니다. 형님은 남홍색 공화국 기'발을 굴뚝 우에 꽂았습니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

사람들의 만세 소리가 하늘 땅을 울렸습니다. 늘씬한 평천'벌을 한 품에 굽어 보며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향해 눈부시게 아찔하게 우뚝 솟아 있는 120 메터의 굴뚝, 폭풍에도 꺾이지 않게 조국 땅 깊이에 뿌리 박고 꿋꿋이 솟아 있는 굴뚝, 그것은 마치 자력 갱생의 위대한 힘, 천리마 조선의 자랑을 온 세계에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공에 휘날리는 공화국 기'발을 우러러 보는 형님의 두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어리였습니다.

오직 당이 가리키는 곳에 청년들의 희망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 민청원 채 룡호 형님과 청년들의 투쟁으로 2 년은 걸려야 쌓을 수 있다던 120 메터의 굴뚝을 1만여 명의 로력과 600여 립방의 나무를 절약하면서도 단 57 일만에 쌓는 세상에 없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단편 소설)

분단의 토끼 섬

원 웅 건

그림 류 환기

새 학기 첫 날 아침에 제 5 분단에서는 책상 자리를 다시 정하게 되였습니다.

학생들은 키가 큰 순서 대로 뒤'줄부터 자리를 잡게 되였습니다. 마침내 영환이는 분단 위원장 일봉이와 한 자리에 가지런히 앉게 되였습니다.

해'빛이 쟁글쟁글 들이쬐는 창문'가에 자리 잡은 영환이는 한편 기쁘기도 하고 괘씸한 생각도 났습니다. 기쁘다는 것은 공부 시간에 시원한 운동장을 내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또 괘씸하다는 것은 분단 위원장 일봉이와 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마음에 마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환이는 일봉이와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닐 뿐더러 분단 위원장이니까 공부 시간에 졸거나 바깥을 내다 본다면 분단 총회 때 말'밥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영환이의 마음 속에는 기쁜 것보다도 분단 위원장 일봉이가 아니꼬운 생각이 더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여 며칠이 안 가서 영환이는 공부 시간에 가끔 졸기는 했습니다. 산수 시간에 영환이는 창문 넘어로 운동장을 한참 동안 내다 보고는 학습장에 토끼를 그리기도 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일봉이가 영환이에게

《공부 시간에 락서만 하면 되니?》

하고 조용히 귀띔해 주었습니다.

영환이는 입을 비죽거리며 산수책을 학습장 우에 슬그머니 덮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 공부가 끝나고 축구 시합을 하다가 영환이는 왼 쪽 다리를 지그러뜨려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습니다.

분단 위원장 일봉이는 일요일을 타서 동무들과 함께 사과랑, 과자랑 들고 군 병원엘 찾아 갔습니다.

일봉이는 영환이에게 병 문안을 합니다.

《어때? 발이 좀 나았니?…》

《그저 그래…》

영환이는 심드렁해서 일봉이가 찾아 온 것을 그리 반가와 하지 않고 맥 없이 대답하는 것이였습니다.

《이걸 받어, 분단 동무들이 보낸 거

야.》

일봉이는 과자랑, 사과랑 영환이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영환이는 가벼운 웃음을 입'가에 어색하게 띄우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봉이는 영환이의 병이 빨리 낫기를 마음 속에서 진정 바랐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분단 동무들의 간절한 마음이였습니다.

사실 영환이는 분단의 영예를 위하여 제 6 분단과 축구 시합을 하다가 그만 실수하여 부상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병원에 들어 와서는 아무 생각 말구 병을 빨리 고쳐야 해. 그래야 하루 바삐 학교에 나와 우리랑 같이 공부하며 뛰놀지 않겠니? 그럼 잘 치료하라.》

일봉이는 영환이의 병 문안을 마치고 저녁 녘에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영환이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학교에 돌아 가면 정말 나를 따뜻이 대해 줄가? 아니야, 전'달 반 생활 총화 때에도 나를 비판해 주지 않았는가?)

전'달 반 생활 총화 때였습니다.

다른 동무들이 이야기한 뒤끝에 분단 위원장 일봉이가 영환이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영환 동무는 몸을 아끼지 않고 꽃밭을 가꾸는 일에서나 축구 련습 때는 모든 힘을 다 내여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학습만은 계획 대로 하지 않는 것이 흠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 모임 때는 가끔 빠져 어데론가 가군 합니다. 이것은 소년단원으로 아주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영환이는 일봉이의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는 사과 꾸러미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일봉이가 사과랑, 과자랑 왜 사 가지고 왔을가? 아니야, 분단 위원장이니까 가지고 왔겠지 뭐… 그렇다면 전 정말 싱거운 일이야.)

영환이는 일봉이를 아니꼽게 생각하면서 사과 꾸러미를 창문'가에 밀어 놓았습니다.

(네가 가져 온 사과를 안 먹는다.)

이럴 때 간호원 누나가 입원실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원 누나! 언제면 퇴원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갑자기 물어요? 병이 나으면 퇴원하지요.》

《며칠이나 있으면 되나요?》

《앞으로 이삼일 지나면 퇴원할 수 있을 거애요. 동무들이 그리운 모양이지…》

《…》

영환이는 잠자코 있였습니다.

간호원 누나는 더운 물 주전자를 책상 우에 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환이는 침대에 들어 누워서 마을의 저수지를 눈앞에 그려 봅니다.

푸른 물이 가득찬 넓은 저수지는 뽀트 놀이도 할 수 있는 큰 호수'가이기도 합니다.

영환이 눈앞에 남몰래 뽀트를 타고 저수지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을 찾아가던 때가 선히 떠오릅니다.

조그마한 섬에는 소나무도 있고 풀도 있었습니다. 영환이는 이 섬을 토끼 섬으로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분단 동무들을 한번 깜짝 놀라게 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영환이는 집에 있는 토끼 한 쌍을 섬으로 가지고 가서 놓아 주었습니다.

토끼가 놀며 풀을 뜯어 먹다가 밤이나 비 오는 날이면 굴 속에 들어 가 자도록 굴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벌써 영환이는 누구도 모르게 토끼 섬의 주인이 되였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가 필하면 영환이는 저수지에로 달려 나가 뽀트를 타고 토끼 섬으로 가군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영환이는 반 모임에도 빠지고 때로는 숙제도 변변히 못 했던 것입니다.

영환이는 토끼 섬을 생각할 적마다 정말 병원 생활이 지루해 났습니다.

영환이는 발을 완전히 치료 받고 한 주일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나왔습니다.

학교에 나온 날 첫 시간은 산수 시간이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영환이는 학습장을 펴 보았습니다.

하마트면 영환이는 소리를 칠번 했습니다.

학습장에는 영환이가 배우지 못한 응용 문제의 답안까지 곱게 정리되여 있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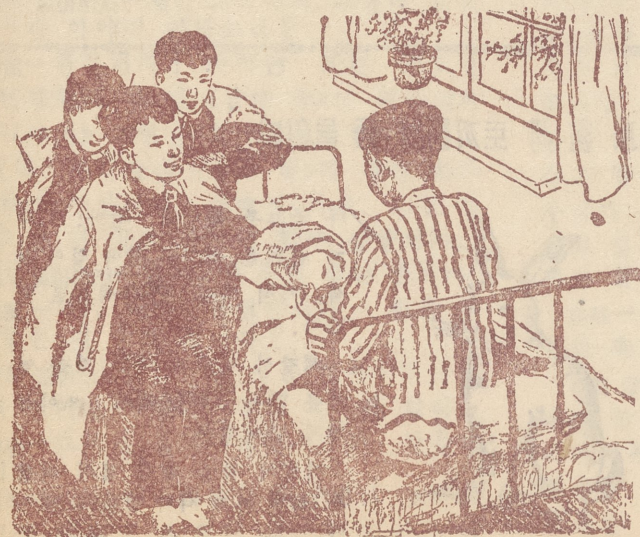
(누가 정리해 주었을가?)

영환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글씨를 하나 하나 뚫어지게 들여다 보고 나서 분단 위원장 일봉이의 학습장을 새삼스럽게 결눈질해 보았습니다. 틀림 없는 분단 위원장의 글씨입니다. 영환이는 일봉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영환이와 일봉이는 서로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일봉이는 입'가에 가벼운 웃음을 띄웁니다.

영환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슬그머니 운동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였습니다.

다음 지리 시간에도 영환이는 자기 학습장에서 조선 자연 지도가 곱게 그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영환이는 측은한 마음으로 일봉이를 쳐다보았으나 좀처럼 고맙다는 말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봉이는 그 동안 영환이의 학습장을 모조리 갖다가 정리해 주었던 것입니다. 학습장을 정리해 주면서 일봉이는 문학 학습장 속에 끼워 있는 토끼 섬의 설계도를 보게 되였습니다.

《토끼 섬》설계도에는 토끼네 운동장도 있고, 굴도 있고, 물 먹는 곳도 있였습니다.

분단 위원장 일봉이는 반 동무들과 함께 토끼 섬을 찾아 가서 영환이가 미처 해 놓지 못한 토끼네 운동장도 만들고 앙고라종의 토끼를 섬으로 옮겨다 놓기도 했습니다.

섬에 있는 넙직한 바위 우에는《영환이가 꾸린 토끼 섬》이란 흰 글씨로 크게 써 놓기도 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일봉이를 따라 날마다 한 번씩 토끼 섬에 가 보군 했습니다.

이 날 방과 후 영환이는 그 동안의《토끼 섬》의 이런 발전과 변화도 모르고 참으로 오래간만이라고 하면서 호수'가로 달려 나갔습니다.

이윽고 영환이는 토끼 섬에 올랐습니다. 그는 첫눈에 안겨 오는 바위 우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환이가 꾸린 토끼 섬》

영환이는 이 글씨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소나무가 우거진 둔덕에 발'길을 옮겼습니다.

(저것도 일봉이의 글씨가 분명하구나. 이 섬을 어떻게 발견했을가?…)

영환이는 달라진 섬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돌아 가다가 문득 소나무가 선 둔덕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아래서 말'소리가 들려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환이가 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난 사실 영환이가 싫어. 자유주의 분자니깐.》

《응, 토끼 섬도 그렇지, 분단에 제기해서 우리가 함께 꾸렸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들의 이런 말을 가로 채면서 이 번엔 일봉이가 말을 했습니다.

《영환인 좋은 애야. 우리 하구 친한 동무야. 이제 오늘부터라도 같이 토끼 섬을 거두구 공부두 같이 하구 하면 좋지 뭘 그래…》

영환이는 나무 뒤에 선 채 나무'잎을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했습니다.

이 때 토끼들이 깡충깡충 소나무 둔덕진 곳으로 기여 올라 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일봉이네가 따라 옵니다.

영환이는 이리하여 일봉이네와 마주 서게 되였습니다.

《야, 토끼 섬의 주인이 왔구나!》

동무들은 정답게 영환이를 대해 주었습니다.

토끼들은 좋아라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합니다. 영환이는 한동안 말 없이 서 있다가 소나무 아지를 꺾으며

《나 없는 동안 토끼를 잘 돌보아 주어서 고마와. 인제부터 이 섬을 분단의 토끼 섬으로 했으면 좋겠어.》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단의 토끼 섬—멋 있는 이름인데…》

《그게 좋겠어. 토끼 뿐만 아니라 다람쥐도 잡아다 기르고 미리부터 새도 잡아다가 새 둥지를 만들어 주고 갖가지 꽃도 심었으면 더욱 좋을 거야…》

《응, 그러면 이 섬에 와서 동식물을 연구할 수 있지 않겠니!》

일봉이가 동무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동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라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상 관측소도 하나 간단히 만들 수 있지. 거기다가 이 섬의 책임자로서는 영환 동무를 정했으면 좋겠어…》

일봉이는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다시 동무들은 박수를 치는가 하면 손을 높이 쳐들면서 좋아라고 떠들어 댔습니다.

저녁 해'발이 저수지 물 우에 비껴 마치 아름다운 무지개가 내려 앉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분단의 토끼 섬은 더 잘 꾸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수수쌀 껍질로 흰 색 토끼털을 물 들인다

수수쌀 껍질(제일 좋기는 흑자색) 500 g에 류황분을 100g~150g 정도 넣고 저어 잘 섞는다.

다음 구멍이 작은 화로에(불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든지 다 좋다.) 목탄'불을 피우고 우에다 수수쌀 껍질을 뿌리면 수수쌀 껍질이 타면서 연기를 뿜는다.(이 때 불'길이 올라 와서는 안 된다.)

이 연기에 토끼 가죽을 가져다 골고루 쏘이면 된다. 이렇게 연기를 쏘이면 흰색 털이 갈색, 자색 혹은 흑자색으로 변한다.

색갈이 연하고 진한 것은 연기를 많이 혹은 적게 쏘이는 것과 관계된다.

이렇게 물을 들인 털의 색갈은 오래 가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척척 할아버지

잠과 꿈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 할아버지—그간 공부를 잘 하였느냐? 새 학년도가 돼서 모두 한 학년씩 올라갔으니까 공부를 더 잘 해야지.

일동—예, 그래서 분단 총회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더 공부 잘해서 모두 우등, 최우등생이 되자고 했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암, 그래야지.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야길 하자느냐?

정희—할아버지! 우리는 오는 토요일 《소년단원의 날》에 《잠과 꿈》에 대한 《과학 이야기》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잠과 꿈》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도 보긴 했는데 좀 더 알고 싶어서 찾아 왔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옳지, 참 흥미 있는 문제다.

호철—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잠을 잘 때 꿈은 왜 꾸게 됩니까?

척척 할아버지—꿈이란 것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잠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한다.

정희—그러면 잠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척척 할아버지—너희들이 개구리나 토끼의 머리를 해부해 본 일이 있지?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

기철—예, 그 속에 두부처럼 희고 흐늘흐늘한 뇌가 있었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옳다. 사람의 머리 속에도 그렇게 생긴 뇌가 있단다. 이 뇌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마치 좁쌀알과 같은 수억만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되였단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거나 일할 때에는 이 세포들 중에는 흥분되여 있는 세포(자지 않고 운동하고 있는 세포)들도 있고 억제된 세포(많은 일을 하여 힘들어 쉬며 잠 자는 세포)들도 있는 것이다.

기철—책에도 뇌의 세포들이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한다고 씌여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척척 할아버지—그럼 더 자세히 말해 보자. 우리의 머리 속에 있는 수억 개의 뇌 세포들은 서로 제각기 하는 일이 다르단다. 너희들도 생리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사람의 온 몸에는 수 많은 신경들이 퍼져 있지?

기철—예, 알고 있습니다.

척척 할아버지—그런데 이 신경들은 중추 신경과 련결되여 있단다.

만약 우리가 손으로 물건을 만졌다면 손에 있는 신경(말초 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된다. 그래서 그 물건이 뜨거운지, 차거운지 혹은 껄껄한지, 매끈매끈한 전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으로 무얼 보면 시신경 세포들이 본 것을 뇌에 전달해서 붉다, 희다 하는 것을 뇌 세포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란다. 이처럼 뇌 세포들은 제각기 맡아 보는 부분이 다르단다. 그런데 이 세포들도 너무 많은 일을 하면 피로해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16 시간~20 시간 정도 일을 하면 뇌 세포들은 몹시 피로해지는 것이다.

호철—그러니까 세포들이 피곤을 풀기 위해 휴식하는 것이 잠입니까?

척척 할아버지—맞았다 맞았어. 뇌의 세포들이 많은 일을 해서 피로해졌거나 쇠약하여져서 휴식을 하는 세포들이 말하자면 억제된 세포들이지.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억제된 세포들이 뇌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였을 때 잠이 오게 되는 것이란다.

숙자—할아버지,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척척 할아버지—어디 너희들은 노상 잠을 안 자고도 배 견디겠더냐? 잠을 노상 안 자면 안 된다. 피로해진 뇌 세포들이 쉬여야 또 새로운 일을 맡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다른 모든 내장 기관들도 마찬가지이지.

숙자—할아버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야 합니까?

척척 할아버지—어른들은 하루에 7~8 시간 정도 자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 같은 소년들(13 세 이상)은 약 9 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한 보름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아도 죽지는 않지만 닷새 동안만 잠을 전혀 자지 않고 꼬박 일을 한다면 아마 그 때에는 생명이 위험해지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쉬기도 하고 잠도 자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정희—요새 우리의 아버지는 늘 깊은 잠을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척척 할아버지—잠을 잘 때 깊이 잠 든다는 것은 그 만큼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뇌의 세포들이 건강하여 억제도 잘 되고 흥분도 잘 된다는 것이다. 몸에 병이 있거나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의 뇌 세포는 약하기 때문에 잠을 깊이 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잠에서 자주 깨여 나군 한단다. 그러니 요새 너의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정희—그러면 잠을 잘 자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척척 할아버지—우선 잠을 잘 자자면 몸이 건강해야 한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 나서 조기 체조도 하고 하루 하루를 일과표 대로 규률있게 생활해야 한다. 그리고 잠 자는 방은 깨끗하고 조용해야 한다. 특히 적당한 운동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단다.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로동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 일로 될 뿐만 아니라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기철—할아버지, 잠에 대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꿈은 어떻게 꾸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척척 할아버지—꿈이란 우리가 늘 보았거나 들은 것들, 또 잠 잘 때 우리 주위에서 일어 나는 모든 것들이 머리 속에 흥분되여 있는 세포들에 전달되였다가 나타난 것이란다.

정희—할아버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척척 할아버지—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꾼 꿈 이야기를 가지고 말해 보자. 누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 봐라.

기철—나는 며칠 전 천리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 가는 꿈을 꾸었어요.

척척 할아버지—그것 참 좋은 꿈이구나. 기철이가 천리마를 타고 하늘로 나는 꿈을 꾼 것은 기철이가 항상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자기도 공부를 잘 하여 천리마를 탄 모범 소년단원이 될 것을 늘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만수대에 우뚝 솟은 천리마 동상을 항상 보아 온 것들이 뇌에 전달되였다가 잠 잘 때 이것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숙자—그러면 사람이 잠 잘 때에는 세포들이 다 쉬지 않습니까?

척척 할아버지—많은 세포들이 피곤하여 쉬

고 있을 때에도 더러 어떤 세포들은 쉬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단다. 이 쉬지 않는 세포들이 낮에 있었던 일이나 또는 항상 생각하던 일들이 꿈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정희—할아버지, 그런데 나는 어제'밤 늦게까지 어려운 산수 문제를 풀지 못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꿈에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척척 할아버지—낮에 산수 문제를 맡아 풀면 뇌 세포들이 노력은 하였지만 그 때에는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의 《방해》로 머리가 복잡하여 풀지 못 했던 게다. 그런데 잠 잘 때에는 그 옆에 있던 다른 세포들은 쉬지만 낮에 산수 문제를 풀던 세포들은 자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풀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옆에서 더러 쉬지 않는 세포들의 도움도 받은 거다.

기철—그러면 왜 다른 세포들이 방해하였을가요?

척척 할아버지—그건 옆에 있는 세포들도 자기가 맡은 일을 제각기 하여야 하기 때문이였지.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꿈에 산수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잠에서 깨여 난 후에 그 문제가 꼭 그 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니까…그건 깨여 난 후에 노력하는 데 따라서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는 거다.

정희—할아버지, 꿈에 무슨 맛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건 좋지 않다고들 하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우리 분단의 만호는 꿈에 떡을 먹었더니 다음 날 감기에 걸렸다고 하여 모두 웃었습니다.

척척 할아버지—허허, 거 재미 있는 이야기군. 과학이 발전되지 못 한 옛날 사람들은 꿈을 풀어 가며 신수가 좋겠다느니, 나쁘겠다느니 하였지만 지금이야 그럴 수 있나. 만약 떡을 먹는 꿈을 꾼 다음 날 감기에 걸렸다면 꿈을 잘못 꾸어서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만호가 위생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감기를 전염시키는 병균이 이미 몸에 침입해 있다가 신통히도 그 날에 감기가 발생한 거지. 또한 꿈에 반가운 손님을 만났더니 정말 그 다음 날 손님이 왔다는 것도 바로 꿈에 봐서 온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그리워 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났다가 마침 그 날 온 것이지 꿈 꾸었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과학을 배우는 소년단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주 잘못된 이야기지.

호철—할아버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꿈은 잠이 깨여 나기 직전에 잘 꾸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척척 할아버지—잠에서 깨여 날 시간이 되면 쉬던 세포들이 피곤을 다 풀고 깨여나는 세포들이 많아져서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란다. 또한 꿈은 잠 들어서 몇 시간 되지 않을 때도 잘 꾸게 된단다. 그것은 아직 어떤 세포들은 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이 번에는 내가 한 가지 물어 볼가?

일동—예.

척척 할아버지—한 학생이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는데 그 학생은 왜 이런 꿈을 꾸였겠니?

호철—나는 그건 그 학생이 언젠가 조금 높은 둔덕 같은 데서 떨어진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희—그건 그 애가 그런 모험을 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다고 봅니다.

척척 할아버지—옳단다. 인젠 너희들이 참 잘 아는구나. 그럼 오늘은 이만하자!

일동—예. 할아버지, 많이 배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조선을 잊지 말자

늘어 가는 《공 납 금》

미국놈들의 부추김을 받아 겨우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 쓴 박 정희놈은 선거 때에는 남조선에 《복지 사회》를 건설하겠다느니, 학교들에서 받는 여러 가지 돈들을 못 받게 하겠다느니, 《공납금》을 낮추겠다느니 떠벌리더니만 대통령 자리에 들어 앉은 지 한 달도 못 돼서 벌써 기차비를 올리고 학교의 월사금을 비롯한 《공납금》을 엄청나게 올려 놓았습니다.

《공납금》이라는 것은 남조선 괴뢰 도당들이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서 학부형들에게서 마구 빼앗아 내는 돈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입학할 때 내는 《입학금》, 《수업료》를 비롯해서 《보건비》요, 《실습비》요, 《기성회비》요 하면서 그 가지 수가 미처 꼽지 못할 만치 많습니다.

그런데 박 정희놈은 이번에 《입학금》은 50%, 《수업료》는 20%, 《기성회비》는 10%씩 또 올려 놓았습니다.

본래 《입학금》이 800 원이였는데 올해는 1천 200 원으로 껑충 뛰여 올랐고 《기성회비》는 2천 원에서 2천 200 원으로, 수업료는 한 학기 분이 900 원에서 1천 080 원으로 모두 뛰여 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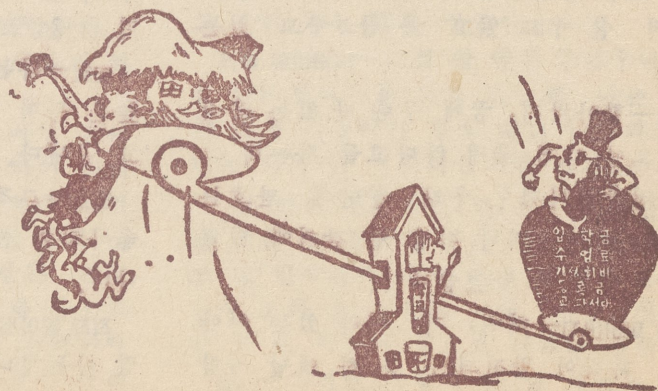
게다가 책 값도 지난 해보다 20~3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 금년에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 가자면 무려 7천 500 원~9천 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쌀 한 되 살 돈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 형편에 이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니 수십만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학교 문앞에도 가 보지 못하고 책가방 대신 구두닦기 통을 메고 거리를 헤매야 하는 것입니다.

요행 학교에 들어 갔던 학생들도 《공납금》이 이처럼 자꾸만 올라 가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학교에서 쫓겨 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만 해도 10여만 명이 《수업료》 때문에 쫓겨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야 더 말할 게 없지요.

요새 남조선 신문들은 《공납금》이 올라서 시험에는 합격하고도 돈 때문에 중학교에 가지 못 하는 학생들이 훨씬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저울》 린 춘수 그림

얼마 전 전라 남도 광주시 서 중학교에서는 학교에 바칠 돈을 다 내지 못 했다고 100여 명의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경상 북도 경주에서도 13 명의 학생들을 《공납금》을 내지 못 했다고 퇴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식들을 학교에 못 보내 애타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애타 우는 어린이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배움의 길을 잃고 세상을 저주하며 어린 목숨을 끊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습니다.

남조선을 잊지 말자

죽음에로 이끈 《공 납 금》

부산시 금성 중학교 3 학년에는 차 환옥이라는 소녀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에 있는 자그마한 공장에서 로동을 하면서 환옥이의 학비를 간신히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옥이는 비록 하루 한 끼의 가난한 살림에 쪼들리면서도 어머니가 마련해 주는 돈으로 아득바득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요.

그는 공부도 퍽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환옥이의 집에는 불행이 닥쳐 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공장이 그만 문을 닫게 되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환옥이의 가족들은 부산 앞 바다'가에 나가 조개를 주어 먹으며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환옥이는 몇 달 동안 《월사금》을 물 수 없었습니다.

달이 바뀔 때마다 환옥이는 교장실에 붙들려 들어 가 《월사금》을 내지 않는다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지어 매를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도 전혀 먹지 못 하고 학교에 간 환옥이는 또 담임 선생과 같이 교장실에 불리워 갔습니다. 《오늘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내쫓겠다.》는 교장의 날카로운 말이 환옥이의 귀'전을 때렸습니다. 환옥이는 벽력과 같은 교장의 이 말에 앞길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교문을 나섰습니다.

(1천 원의 돈, 이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가?) 환옥이의 어린 가슴에는 괴뢰 도당의 앞잡이 교장놈이 밉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리는 없었습니다.

남조선을 잊지 말자

그는 마침내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 달음으로 집에 돌아 온 환옥이는 자기가 고이 간직해 오던 교과서를 모두 팔아 가지고 약방으로 달려 가 독약을 두 봉지 샀습니다. 그는 공부할래야 할 수 없는 남조선 사회와 그리고 앞길이 양양한 어린이들의 배움의 길을 빼앗은 미국놈과 박 정회 도당을 끝 없이 증오하면서 독약을 먹고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남조선 어린이들은 앉아서 눈물만 흘리거나 죽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미제와 그 앞잡이 도당을 반대해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거세찬 투쟁

학교에서 쫓겨난 남녘 땅 어린이들은 거리에서 구두닦기, 신문팔이, 껌장사 등을 하여 그 날 그 날의 비참한 생활을 지내거나 또는 깡통을 허리에 차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 먹는 거지 생활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 정회 도당은 거리에서 헤매는 아이들을 끌어다가 일을 부려 먹으며 헐값으로 팔아 넘기기 위해 《고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울시 흑석동에 있는 《동명 고아원》에서는 박 정회 도당의 앞잡이 놈인 원장놈이 아이들에게 하루 보리밥 강다리 한 줌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는 일만 시켜 돈을 벌어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놈들은 고아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가꾼 무우와 배추, 파 등을 시장에다 팔아 먹으면서 원아들에게는 소금'국만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격분한 120여 명의 고아들은 얼마 전에 한데 뭉쳐 투쟁에 일어 섰습니다.

그들은 아침 9시에 고아원 운동장에 모여 고아원 원장과 싸울 결의를 다지고 사무실을 습격하여 유리창을 깡그리 깨버렸고 원장놈의 집에 달려 가 돌로 집을 까부셨습니다.

원장놈은 아이들이 던지는 돌에 얼굴을 얻어 맞고 피투성이가 되여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 ×

배움의 길을 잃고 모진 가난과 학대에 시달리는 남녘 땅 어린이들에게도 공화국 북반부 어린이들처럼 배움의 길이 활짝 열리고 행복한 생활이 안겨져야 합니다. 그 날을 위해 우리는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과학 환상 이야기)

잠수어선 99호

(1 회)

김 윤 덕

그림 양 재혁

유람용 기관선은 발동기 소리도 고르롭게 파도를 가르며 쏜살 같이 앞으로 달렸다.

뭍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한결 물'결은 높아졌다. 워낙 자그마한 유람선이라 나무'잎마냥 배는 몹시도 흔들렸다.

《광일아, 인젠 그만 돌아 가는 게 어떠니?》

앞자리에 앉아 운전에 여념이 없는 광일을 향해 옆에 앉았던 춘자가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처음 광일이는 못마땅한듯 힐끔 춘자를 바라 보고는 묵묵히 수평선만을 바라보며 나갔다. 이윽고 광일이는 가벼운 웃음을 머금고 춘자에게 되물었다.

《왜, 벌써 겁이 나니? 약속하기야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고기잡이 배를 만나고야 돌아 가기로 하지 않았니?》

《글쎄, 그건 그렇지만…》 춘자는 더 말을 잇지 못 하고 말았다. 다시금 배 안은 조용해졌다.

이따금 배 앞머리에 부딪친 파도가 산산히 흩어지며 운전대 앞 유리에 구슬 같은 물'방울을 튕기였다.

뒤'자리에 앉은 호길이는 광일이와 춘자가 주고 받는 이야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배는 계속 달렸다.

한참만에 호길이가 입을 뗐다.

《광일아! 난 이런 생각을 했어.》 호길이는 광일이 의자의 등받이에 손을 받치고 그 우에 턱을 고이며 이야기했다.

광일이는 계속 앞을 내다 보며 얘가 또 무슨 엉뚱한 생각을 했나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바다의 물'고기를 꼭 그물로 밖에 잡을 수 없을가?》

《아니. 그럼 무얼로 잡겠니?》

《난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가 어렸을 때 개울에서 고기를 잡던 것처럼 전기로 고기를 잡을 순 없을가 하는 거야.》

《뭐 전기로 고기를?》

《내가 인민 학교 때 말이야, 한 번은 어떤 애가 손 발전기를 구해 왔어. 그래 그 애는 손 발전기에 도선을 련결하고는 애들을 보고 그 도선을 쥐라고 했지. 그리고는 손 발전기의 회전자를 윙윙 돌렸단 말이다. 도선을 쥔 애가 소리를 칠 정도로 놀랐지. 나도 한 번 혼이 났어.

그런데 아주 장난꾸러기가 있었는데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교실 안에 놓인 금붕어를 전기로 놀래여 보려고 했어. 그래서 그 애는 끝내 손 발전기로 금붕어를 죽이고야 말잖았겠니.》

《그 앤 욕을 단단히 먹었겠구나.》

《그 애야 그 이튿날 자기 집의 금붕어를 슬그머니 학교로 가져 오고야 배겼지.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응, 네 생각을 알만 해. 바다에서도 전기로 고기를 잡을 수 없을가 하는 거지?》

《응, 전기로 고기를 잡는다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손 쉽게 잡아 낼 것인가 말이다. 어때?》

《야! 그건 참 재미 있는 이야기야.》

호길이가 신이 나서 하는 말에 광일이도 어느 새 그만 끌려 들어 갔다.

그런데 춘자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을 한 채 그들의 이야기를 한편 귀로 들으며 줄곧 바깥 파도만 바라 보고 있었다.

이 때 배가 몹시 흔들렸다. 애들은 저도 모르게 의자 등받이를 붙들었다. 웬일인지 여태까지 잠잠하던 바다가 설레이기 시작했다.

《애들아, 어서 돌아 가자.》 춘자가 다시 웨쳤다.

《아냐, 우리가 떠날 때 약속한 것처럼 고기'배를 만날 때까지는 계속 가 보자. 요만 파도야 뭘…춘자는 정말 겁쟁이구나. 걱정 말어, 일 없어.》

광일이가 자기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파도가 높아지며 아까보다 더한층 배가 흔들렸다.

《애들아, 저게 뭐니? 저것 봐!》 갑자기 호길이가 다급하게 웨치며 자리에서 일어 나 앞을 가리켰다. 호길이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 본 광일이와 춘자도 깜짝 놀랐다. 난데없이 물 속에서 무엇인가가 솟아 오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거의 100 메터 앞에서 집채만한 검은 것이 솟아 오르며 무수한 거품을 일구고 있었다.

세 애들은 모두 겁이 더럭 났다.

(고래가 아닌가? 고래라면 배에 위험이 닥쳐 온다. 어떻게 할 것인가?)

광일은 서둘러 운전 손잡이를 돌렸다. 그리고는 배'머리를 아까 오던 방향으로 돌렸다. 배의 속력을 높였다. 그러나 배는 산 같이 솟아 올랐다 떨어지는 파도에 실려 마음 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애들은 손에 땀을 쥐고 더딘 배에 마음을 조이고 있었다.

한참만에 뒤를 돌아다 본 춘자는 깜짝 놀랐다. 고래도 아닌 이상하게 생긴 큰 배가 바다 우에 우뚝 솟아 있었다.

《애들아, 저게 뭐니?》

《야, 저것?!》 광일이와 호길이도 뒤를 돌아 보고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꼭 배가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다만 등이 평평하고 거기에 란간이 있고 중심에 탑 같은 게 솟아 있었다. 배 좌우에는 물'고기의 수염처럼 긴 쇠'대가 뻗어 있었고 배'머리에는 여러 개의 등이 있어 퉁방울 같은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어떻게 입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저게 뭘가?》 광일이는 고래라 생각했던 것이 그래도 고래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물건이라는 데 안심을 하였다.

애들은 모두 기관선의 웃뚜껑에 뛰여 올랐다. 기관선은 파도에 천천히 흔들렸다. 아까 저것이 솟아 오르느라고 난데없는 파도가 높았던 모양이다.

《야, 공화국기다!》 광일이가 웨쳤다.

배가 물 우로 솟아 오르자 큰 배의 옆구리에는 선명한 공화국기가 그려져 있었으며 그 옆에 99라는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야! 우리의 잠수함이다!》 광일이는 기쁨에 넘쳐 웨쳤다.

《만세! 만세!》 기관선 우의 세 소년단원들은 기쁨에 차 소리 높이 만세를 웨쳤다. 그리고는 기관선을 그 배 가까이로 몰고 갔다.

거의 기관선이 큰 배로 다가 갔을 때 탑 같은 곳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오셨다. 그리고는 더 가까이로 오라고 손짓을 하셨다.

세 동무는 아저씨의 부축을 받아 큰 배—잠수함 같은 배에로 올랐다.

아저씨는 매우 반갑게 세 동무들을 맞아 주었다.

《너희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니?》

《원산 〇〇 중학교에 다닙니다.》

광일이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럼 송도원에서 떠나 왔겠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먼 바다에 자그마한 기관선을 타고 나왔니?》

《저희들은 지금 여름 방학 중입니다. 그래 고기 잡는 큰 배를 찾아 대담하게 먼 바다로 나와 보기로 했습니다.》

《모험을 하는 셈이군.》 아저씨는 껄껄껄 웃으셨다.

《아저씨, 이 배는 잠수함이지요? 그런데 아저씬 어째서 해군복을 입지 않으셨나요?》 호길이가 아저씨를 빤히 바라 보며 물었다.

《잠수함? 넌 잠수함을 봤니?》

아저씨는 역시 빙글빙글 웃으시면서 호길이에게 되물었다.

《보진 못 했어두 전 작년 여름 방학에 삼촌네 집에 놀러 갔다 들었어요.》 호길이가 자랑 삼아 이야기했다.

《얘 삼촌은 잠수함 함장이랍니다. 중좌예요.》

춘자가 옆에서 덧붙였다.

《잠수함이 아니라 이 배는 잠수 어선이다.》

《네?!》 애들은 이구동성으로 웨쳤다.

《아저씨! 그럼 이 배가 고기'배란 말입니까?》

광일이가 놀랜 표정 그 대로 아저씨를 바라 보며 물었다.

《그렇다. 고기'배다. 그런데 보통 고기'배와는 달라서 물 속에서 고기를 잡는 배다.》

《물 속에서요?!》 춘자도 이제야 안심이 된듯 까만 눈알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렇다. 넌 잘 미더지지 않는 게구나. 이 배가 어떻게 고기를 잡는가 볼가? 그럼 운전실로 들어들 가자.》 하며 아저씨가 먼저 탑 같은 곳으로 걸어 가셨다. 애들도 뒤따랐다.

《아저씨! 우리들의 유람용 기관선은 어떻게 할가요?》 광일이가 큰 잠수 어선에 매달려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유람용 기관선을 보며 물었다.

《무전으로 송도원 휴양소에 련락하여 끌고 가도록 하자.》

애들은 아저씨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 운전실로 들어 갔다. 운전실은 애들의 상상과는 달리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자그마한 방(큰 배의 몸'집에 비해 운전실은 작았다.)의 정면에 복잡한 기계들과 흔히 보아 오는 텔레비죤 영사막이 서너 개 붙은 계기판이 놓여 있었고 그 외에 빨간 색, 파란 색을 칠한 단추가 여러 개 있었다. 계기판 앞에는 교탁과 비슷한 흰 색의 운전대가 놓여 있었고 세 벽에는 안락 의자가 벽에 붙여 놓여 있었다.

《자, 앉으라구.》 아저씨는 친절히 애들을 안락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애들이 적당히 자리를 잡아 앉자 아저씨는 운전대로 다가 가며

《자, 잠수를 시작해 보자!》 하고는 어떤 단추를 누르며 소리 쳤다.

《잠수 준비!》

《잠수 준비 완료!》 어디선지 웅굴은 대답 소리가 들렸다.

《잠수 시작!》 아저씨의 구령이 떨어지자 배가 가볍게 흔들리며 약간 폭음이 울렸다. 그러자 아저씨는 천천히 애들에게로 다가 와 안락 의자에 앉았다.

《아저씨, 이 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

요.》

춘자가 아저씨에게로 바싹 다가 앉으며 청했다.

《이 배는 원자력에 의해 달리는 잠수 어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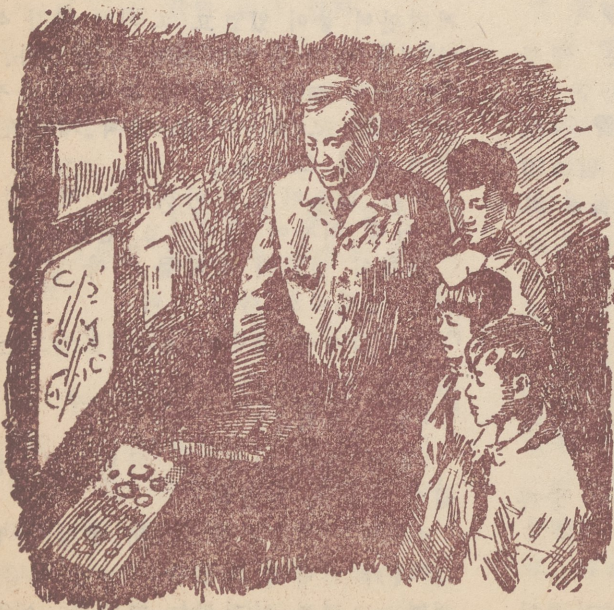
《원자력 잠수 어선이라구요?》 호길이가 제법 어른처럼 머리를 끄덕였다.

《이 배는 처음 물에 뜬 때로부터 20 년간은 새로운 연료의 공급 없이 다닐 수 있다.

너희들은 ××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 본 일이 있니?》 아저씨의 물음에 애들은 모두들 《예》 하고 대답한다.

《우린 금년 겨울에 분단이 몽땅 원자력 발전소에 견학 갔다 왔습니다.》 춘자가 대답했다.

《그러면 설명하기 더욱 좋겠군. 이 배도 보통의 원자력 발전소와 원리가 같단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 반응가마에서 얻은 열로 증기를 일쿠고 그 증기로 타빈을 돌려 이 배의 추진기를 돌린다. 그리고 추진기와 함께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일쿤다.》

《아저씨, 잠수하는 건 보통의 잠수함과 원리가 같습니까?》 호길이는 버쩍 호기심에 차 물었다.

《아니 다르단다. 보통 잠수함은 배 안에 물을 넣으며 잠수하지만 이 배는 배우로 증기를 내뿜으며 잠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 어선도 얼마든지 깊이 잠수할 수 있고 지어 1천여 메터의 바다 밑까지에도 들어 갈 수 있다.》

아저씨가 여기까지 이야기하였을 때 계기판에서 빨간 불이 번득이며 연한 신호 소리가 울렸다. 신호 소리에 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나 운전대로 다가 가셨다.

애들도 자리에서 일어 나 아저씨의 곁으로 갔다. 모든 것이 신기해만 보였다.

《자, 고기를 잡아 보자. 이 잠수 어선은 유도 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항해한다. 지금 신호 소리는 예정 장소에 왔다는 것을 알려 준다. 지금 잠수 어선은 북위 37도 5부, 동경 128도 8부의 위치에 와 있다. 저기를 봐라.》

아저씨는 운전대 우의 단추를 누르며 계기판 우의 한 텔레비죤 영사막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가로세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파란 점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저 파란 점이 우리 잠수 어선이고 가로세로 그어진 줄은 위도를 표시해 준다.》 아저씨는 또 한 단추를 가볍게 눌렀다.

한 영사막이 이 번에는 푸르스름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드니 점점 선명해지며 영사막 하나 가득히 물'고기의 영상이 나타났다.

《야! 고등어다.》 광일이가 웨쳤다.

《저기 가재미도 있네.》 호길이도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흔히 보아 오는 물'고기들이였지만 텔레비존 영사막을 통해 살아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기란 실로 재미 있였다.

《지금 잠수 어선은 고등어 떼의 한복판을 뚫고 달리고 있다. 이 잠수 어선은 고기떼를 저절로 찾아 낼 뿐더러 찾아 낸 고기떼를 따라 배가 달리게 유도 장치가 되여 있단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어선들과 다른 점이다.》 아저씨는 영사막에 나타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씀을 계속하셨다.

《인류가 언제부터 물'고기를 낚으기 시작했는가는 정확히 밝히기 힘들다. 아마 류인원 시대로부터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을 게다. 로동이 인간을 창조한 때로부터 인간은 주로 농사를 짓기 전에 산에서 날'짐승을 잡거나 개울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업이였지. 아마도 처음에는 물'고기를 손으로 더듬어 잡았거나 돌멩이를 던져 잡았을 거다. 그 후 날창으로 고기를 찍어 잡기도 했고 그러다 차츰 바다에서도 고기를 낚으게 되였다.

그리고 또 방직업이 발전되면서 그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으면서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순전히 경험으로 물'고기떼를 찾아 다녔다.

그리고는 물'고기가 있음직한 곳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단다. 요행 제 대로 그물을 치면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어떤 때는 빈 그물을 끌고 돌아 오기가 일수였지. 이런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거의 20 세기 초엽까지 계속되였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20 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고기떼를 비행기로 찾아내기 시작했지. 그러나 빠른 속도로 나는 비행기로 고기떼를 찾는다고는 하지만 비행사의 실수로 헛수고를 하는 때도 있고 혹은 고기떼가 있는 장소를 어선이 찾지를 못 해 애 쓰기도 했단다.

그 후 초음파가 광범히 리용되기 시작하면서 초음파 어군 탐지기가 생겨 났지. 즉 고기떼를 찾는 배가 앞으로 나가면서 초음파를 보내거든. 그러면 초음파가 고기떼에 부딪쳐 돌아 오는 것을 보고 고기떼가 있는 깊이와 방향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로 방법에 있어서 진공적이 못 되고 말하자면 방어적이지. 왜냐 하면 물'고기를 찾아 내여 물 우에서 직접 보지도 못 하고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러나 이 배는 진공적인 어로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 셈이다. 물 속에서 고기를 직접 보며 따라 가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안 그러냐?》 하고 아저씨는 신이 나서 말씀을 하시였다.

《아저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호길이는 온 정신을 가다듬어 이야기를 들었다.

《이 배는 종합적으로 고기떼를 찾는단다.》

《네? 종합적이란 게 뭡니까?》 춘자가 옆에서 되물었다.

(다음 호에 계속)

발을 가졌던 고래

동무들은 고래가 먼 옛날 땅 우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지요.

얼마 전에 고래가 륙지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몇 해 전 꾸릴 렬도 가까이에서 괴상하게 생긴 고래가 잡혔는데 그 고래의 몸에는 두 쌍의 혹이 달려 있었습니다. 혹 속에는 발달되지 못 한 대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고래가 옛날에는 이 발로 걸어 다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리 시 형

편지는 반드시 어떻게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끔 하고 싶은 말이 다른데 어떻게 똑 같은 식으로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는 편지를 잘 쓰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동무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저 합니다.

편지는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식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무들은 자기도 모를 어려운 말이나 자기가 꼭 말하고 싶던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는 쓸 데 없이 긴 연설을 늘여 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는 꼭 하고 싶은 말을 보내자는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식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서도 마치 편지를 보낸 사람과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어떤 순서로 쓰면 좋을가요?

우리가 남의 집을 찾아 갔을 때나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또는 《그간 편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편지에서도 첫 말은 인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만나자 마자 인사는 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딴 이야기부터 꺼내면 실례인 것처럼 편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에서는 앞에다 먼저 상대편이 몸 건강히 지내는지, 집안이 다 편안한지 물어야 합니다.

가령 웃사람에게 하는 편지일 때는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또는 《그 동안 ○○○을 비롯하여 집안이 다 무고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차려야 하며 자기 동무들에게 쓸 때에도 《그간 잘 있었니?》, 《그 동안 어떻게 지내니?》 등으로 첫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식도 전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식을 전하는 데서도 될수록 새 소식을 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나는 공부 잘 하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 분단 동무들도 다 잘 있단다.》,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잘 있다.》는 식으로 지나 가는 인사거리로 한 마디씩 적어 놓는 그런 편지는 읽고서도 별로 반갑거나 살뜰한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학교에서는 분단 별 연예 써클 경연 대회가 있었단다. 그런데 우리 분단이 영예의 1등을 했지. 나는 중창조에 나가 노래 불렀어. 그러면서도 난 분단의 꾀꼴새로 불리우던 네가 없는 것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또는 《나는 요새 학교의 웅변 대회에 출연할 준비를 하고 있단다. 어제 토론 원고를 써 가지고 갔더니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또는 《요새 우리 집엔 기쁜 일이 생겼단다. 인민 군대 나갔던 우리 오빠가 휴가로 오시지 않았겠니.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극장 구경도 가고 사진도 찍었단다.》 등으로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할 이야기들을 적어 보낸다면 얼마나 받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편지에는 자기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에는 언제나 자기가 한 일,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있는 그 대로 꾸밈 없이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편지를 띄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를 끝맺을 때에는 우리가 동무들과 만났다가 헤여질 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인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몸 성히 계십시오.》 또는 《안녕히, 편지를 기다리겠어요.》와 같이 알맞게 인사'말을 적어야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 웃사람께 또는 자기 동무에게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간단히 알아 보기로 합시다.

먼저 웃사람에게 드리는 편지에 대해 말해 봅시다.

어떤 동무의 편지는 《존경하시는 선생님에게》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존경하시는》이란 말은 자기를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시는》 하면 자기를 높여서 말하는 뜻이므로 알맞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존경하는》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라는 말에는 《존경하는》 선생님께 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으므로 이 때에는 《선생님께》라고 써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웃사람께 하는 말에는 반드시 존경하는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골라서 웃사람을 존경하는 말투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 나갈 때 마치 웃사람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는듯한 이야기는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례로 됩니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어른들에게 배우고 싶은 이야기, 어른들이 보고 기뻐하실 이야기들을 적어 보내야 합니다.

다음에 동무들 사이에서는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말해 봅시다.

동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늘쌍 동무들과 같이 지낼 때 쓰는 말로 쓰면 됩니다. 동무들끼리는 웃사람을 대할 때와는 달리 허물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분단 벽보 주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분단 동무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단다.》와 같이 살뜰한 말을 써야 합니다.

동무들 사이에 주고 받는 편지에는 서로 알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동무들 사이에 서로 알고 싶은 일이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상대편 동무에게 알려 주어서 도움이 되거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 생긴 일을 적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편지는 그저 소식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편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며 알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잘 쓰자면 우리 말과 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될수록 늘 쓰는 알기 쉽고 아름다운 말을 써야 합니다. 글을 억지로 꾸며서 쓰면 보는 사람에게 믿어지지 않고 기분을 거슬리게 합니다. 편지를 쓰면서도 글을 잘 쓰도록 애 써야 합니다.

글을 홀려 써서 남이 알아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제 나라 말과 글을 잘 쓸 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글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옳바르게 쓰는 사람은 우리 나라 말과 글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 나라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쓸 때 편지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날'자 같은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누가 보낸 편지인가를 곧 알 수 있습니다.

봉투 쓰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봉함 편지일 때는 받는 사람의 주소는 언제나 봉투 앞에다 써야 하고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뒤'면에다 씁니다. 이 때에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은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보다 좀 크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봉함 엽서일 때는 받는 사람의 주소나 보내는 사람의 주소나 다 봉투 앞면에 쓰되 받는 사람의 주소는 우에다 쓰고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아래에다 씁니다.

그럼 앞으로는 모두 이런 방법으로 편지를 써 봅시다.

실을 뽑는 고양이

동무들은 고양이가 누에 고치처럼 실을 뽑는다면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 미주의 비마라키 지역에는 바로 이런 실을 뽑는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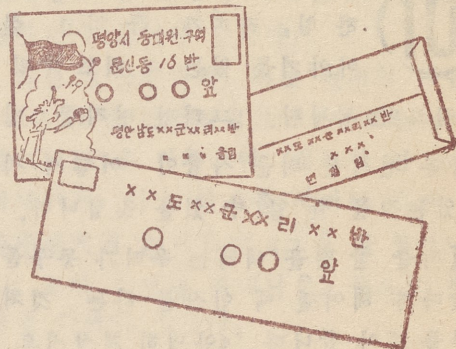
이 고양이는 보통 고양이보다 약간 작을 뿐입니다.

고양이의 입안에는 실이 나오는 구멍이 네 개 있고 그 구멍 안에 물'엿처럼 진득진득한 점액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점액을 토하는데 이것이 실로 됩니다.

이 실은 누에 실보다 약간 굵고 색갈이 고우며 곱절이나 질기기 때문에 옷도 지어 입을 수 있답니다.

련재 그림

오누이 (2회)

글 허일 그림 맹동원

⑳ 두 오누이는 선주네 집에서 모진 학대와 굶주림 속에 고된 로동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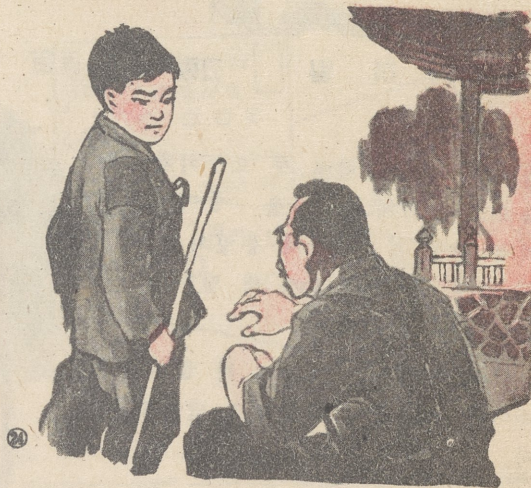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은 서로 아끼고 도와 가며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오시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참아 나간다. 《봉숙아, 우리는 거지도, 이 집 머슴도 아니야, 어머니만 돌아 오시면 또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의 원쑤를 갚아야 돼!》

㉑ 선주놈은 단번에 두 오누이를 머슴으로 부리게 된 것을 좋아하면서 왜놈 경찰 기무라에게 봉일의 어머니를 영영 못 돌아 오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악독한 왜놈은 그렇게 해 줄테니 봉숙이를 자기집 아이보개로 달라고 한다.

㉒ 봉일이는 고된 로동 속에서도 항상 배움에 대한 정열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선주의 아들 칠석이가 공부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들여다 보며 산수도 배워 나갔다.

㉓ 선주의 마누라는 《가난뱅이가 어쭉지 않게 공부가 다 뭐냐? 공부는 아무나 하는 줄 아니?》 하며 덤벼 들어 봉일이가 자나 깨나 소중히 간직하며 쓰고 다니던 모자를 빼앗고 그를 일터로 내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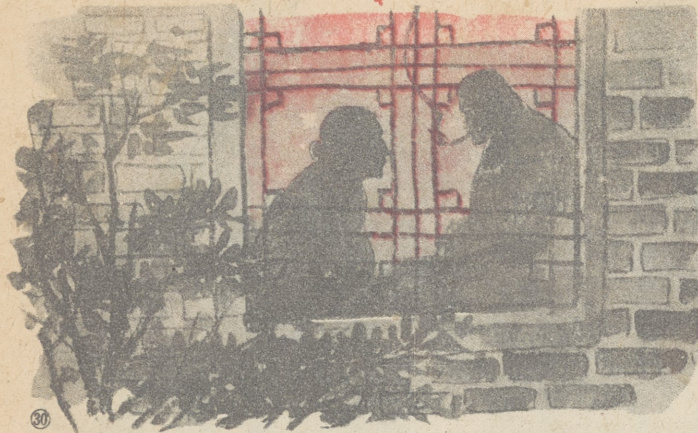
㉔ 봉일이는 선주에게 모자를 돌려 달라고 애걸하였으나 《네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마련해야 어머니가 빨리 나오신다.》고 속여 넘기려고 한다. 봉일이는 《홍 제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마저 빼앗아 가고…》 하면서 선주의 간악한 속심을 더욱 증오한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또 일터로 나가야만 했다.

㉕ 한편 성호 아저씨는 어부들이 한 푼 두 푼씩 모은 돈을 가지고 와서 오누이를 데려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선주놈은 《마사진 배'값까지 가지고 와야 한다.》고 호통치면서 문을 닫고 들어 가 버린다. 성호 아저씨는 《이 세상에 거머리 같은 놈아, 네 놈이 며칠이나 기승을 부리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며 대문을 박차고 나간다.

㉖ 봉숙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불 아궁이 속에서 오빠의 모자를 발견한다.

그는 선주 마누라의 눈을 피해 가며 모자를 간직하고 있다가 《이 모자를 왜 오빠가 버렸을가?》 하고 의심을 품으면서 오빠를 찾아 일터로 나온다.

㉗ 이 때 고무총으로 새잡이를 하다가 새를 놓친 칠석이는 봉숙이를 발견하고 《너 때문에 새가 달아났어! 빨리 잡아 와!》 하면서 사정 없이 때린다.

㉘ 짐을 나르다가 동생이 매를 맞는 것을 본 봉일은 칠석이놈을 떠밀며 《왜 어린애를 때리니?》 하고 타이른다. 그러나 칠석이는 봉일이가 자기를 때렸다고 울며 뛰여 들어 간다.

㉙ 선주와 마누라는 봉일이를 마구 때린 다음 꽁꽁 묶어서 창고에 가두라고 한다. 봉일이는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하며 대들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㉚ 선주놈은 오누이를 같이 두어서는 말썽만 부리겠다고 하면서 봉숙이를 왜놈 경찰 기무라에게 바치고 그 대신 왜놈의 덕을 입자고 마누라와 의논한다.

㉛ 봉숙이는 선주네 집 식구들의 눈을 피해 가며 창고에 나와 문'고리를 벗기고 오빠를 구원하려 애쓴다. 그러나 그의 약한 힘으로는 문'고리가 벗겨지지 않는다. 봉일이는 안타까와하는 봉숙에게《고만 둬, 들키면 너까지 혼난다. 어서 들어 가 봐!》하고 말린다. 봉숙이는 모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㉜ 선주놈은 감독놈을 시켜 봉숙이를 기무라에게 끌어다 주라고 한다. 봉숙이는 《난 싫어요, 오빠와 같이 살래요.》 하며 몸부림친다. 감독놈은 사정 없이 끌고 간다. 창고에서 이 사실을 듣고 있던 봉일이는 가슴이 메여지는듯 《봉숙아—》 하고 문을 짓부실듯 흔든다.

이렇게 되여 어린 오누이는 서로 헤여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독자란

우리는 본받아요

우리들은 노래해요.
아동단의 붉은 마음
조직 앞에 다진 맹세
목숨 바쳐 지켜 낸
　어린 투사들.

총 칼 원쑤놈들
앞을 막고 또 막아도
유격대의 비밀 련락
그들은 다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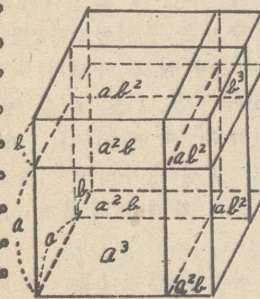
온 세상에 자랑해요,
아동단의 혁명 정신
그들의 높은 뜻
우리 본받아 감을…

《강도 일제 처 부시자!》
골목골목 에돌며 삐라
　붙이여
원쑤놈들 가슴 속을
써늘케 하였지, 벌벌
　떨게 하였지.

길이길이 빛내 가요
아동단의 혁명 정신
우리는 배워요.
우리는 본받아요.

평북도 박천군 률곡 중학교 단
김 학근

$(A+B)^3$을 그림으로 간단히 구하는법.

$(A+B)^3$은 한 변의 길이가 $(A+B)$인 립방체의 체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구분된 매개 립방체의 체적을 해당 립방체의 밑면에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따라서

$(A+B)^3=A^3+3A^2B+3AB^2+B^3$이 이다.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법

그림과 같은 다각형이 있다하자. (6각형)

다각형 내에 임이의 점을 취하고 정점들과 련결하여 6 개의 삼각형을 만든다.

그런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이다.

그렇기 때문에 6 개의 삼각형의 대각의 합은 $180° \times 6$ 이다.

그러면 6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times 6 - 360° = 180° \times (6-2) = 720°$ 이다.

따라서 n각형인 경우에는

$180° \times n - 360° = 180° \times (n-2)$ 로 된다.

서울에 계시는 할머님께 드리는 편지

보고싶은 할머니!

그동안 안녕히 계십니까? 저는 할머니의 손녀 선희입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제 저를 만나도 못 알아 보실 것입니다.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우리가 할머니와 헤여진 후 14 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으니 어떻게 알아 보시겠습니까. 그 때 저는 갓난 어린애든걸요.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모르지만 남의 할머니들을 보면 자꾸만 나도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생일 날이여서 온 식구가 옥류관을 찾아 왔습니다. 옥류관은 우리 나라 사람들 누구나가 찾아 와 즐기는 궁궐같은

집입니다. 이 집은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 나라 건설자 아저씨들이 지은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서는 지주, 자본가 놈들이나 진탕망탕 처먹으며 놀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된 우리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 와서 기쁨을 즐기고 명절을 즐깁니다.

할머니, 이런 날 할머니가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는 국수를 잡수시면서 자꾸만 생각에 잠기시였습니다. 오늘도 남녘 땅 어디에서 편안히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의 행패에 시달리다 돌아가시지나 않았는지하고 걱정하십니다.

《이 맛 있는 국수를 할머니에게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어머니는 그만 잡숫던 국수를 채 다 드시지 못 한 채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짓는 것이였지요.

어머니는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이 기쁨을 할머니와 함께 나누지 못 하는것을 서운해 하십니다.

존경하는 할머니, 나는 지금 어엿한 중학생입니다.

내가 중학생이 되던 날 어머니는 처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우리 인민 군대가 미제 침략 군대와 리 승만 역도들을 무찌르며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던 때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때 경기도 당위원회에서 사업하셨다지요. 일시적 후퇴 시기 아버지는 원쑤놈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놈들의 손에 희생되였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인 미국놈이 지금도 남쪽 땅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아버지는 비록 안 계시지만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저는 아무 근심없이 행복하게 공부하며 자랍니다. 저는 해마다 나라에서 교복과 학용품을 거저 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학습이 끝나면 아동 도서관에 찾아 가 재미 있는 책을 읽기도 하고 세계에서도 유명한 학생 소년 궁전에서 피아노를 치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 소년 궁전의 예술 소조원이니까요.

평양의 장대'재 우에 12층의 높이로 우뚝 솟은 학생 소년 궁전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물만치 훌륭한 궁전입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지어 주신 것이지요. 여기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고 배우고 싶고 뛰놀고 싶은 그 무엇이나 다 마련 돼 있으니까요.

정말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나 아끼지 않고 마련해 주십니다.

할머니, 저는 1961년 5, 1 절 날 김 일성 원수님과 함께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그 날 영광스럽게도 김 일성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였답니다. 그 날의 감격을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어요.

나는 그 날도 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가고 생각하니 할머니를 못 만나게 분계선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놈들이 한 없이 미웠습니다.

우리 집 온 식구들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남조선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헌 누더기를 걸치고 한강 다리 밑에서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미국놈의 총에 맞아 죽지 않으면 어디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해'빛처럼 따사로운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에 안겨 마음껏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환갑 날에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쓰기만하면 뭘하나요. 보내지도 못 하는걸요.

글쎄 바다 건너 먼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조선 소년들과도 편지를 주고 받는데 무엇 때문에 지척에 계시는 할머니에게 편지 한 장 보낼 수 없습니까. 그것은 미제 원쑤놈들과 박 정희 군사 깡패놈들 때문이라는 것을 할머니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할머니, 미제 원쑤놈들을 반드시 몰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잡이 박 정희 도당을 때려 없애야 합니다. 저는 지금 남조선의 로동자 아저씨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 도당을 반대해 일어 나 싸우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 남조선 인민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압니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도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북반부 인민들은 옷감을 한 자 짜도, 신발을 한켤레 만들어도 남반부 인민들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힘쓴답니다.

할머니, 조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선희가 할머니를 만날 때까지 꼭 몸조심 하십시오.

어머니는 조국 통일이 되면 우리 집 온 식구가 모여 앉아 할머니의 환갑 잔치를 차려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꼭 그 날이 올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1964년 4월 X일 손녀 리 선희 올림

(동시)

《소년 신문 동요 동시 발표회》
2등 당선 작품

통신원 아저씨

제비표 자전거에
우편물 싣고
쉴 새 없이 다니는
통신원 아저씨

천리마 나래치는
사회주의 건설장에
새 소식 기쁜 소식
전해 주려고

제비표 자전거
신나게 몰아 가는
통신원 아저씨
고마운 아저씨

미국놈들 우리 나라
먹어 보려고
비행기로 폭격하고
불을 지를 때

전쟁의 포화 속을
뚫고 다니며
용감히 싸워 이긴
통신원 아저씨

오늘은 신이 나서
제비표 몰아 가요
가슴 가득 기쁨 안고
자전거에 우편물 싣고…

황남 삼천군 금천 중학교 단
장 광수

《말둥이》와 《글둥이》가 탄 기차는 망망한 동해바다 기슭을 따라 북으로 북으로 씽씽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거름'더미가 줄줄이 덮인 논밭도 지나 가고 검은 연기 콸콸 피여 오르는 어마어마한 공장 굴뚝도 지나 갔어요. 《말둥이》와 《글둥이》는 입이 헤벌럭해지는 것도 모르고 흐뭇한 마음으로 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언뜻 들려 오는 말소리에 《말둥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동셉아! 니 그러채이니?》, 《말둥이》가 돌아다 보니 방아다리에 사는 동섭이와 철규가 지나 가며 서로 주고 받는 말이였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가 하고 귀를 도사리고 듣느라니까 동섭이가 큰 소리로 《그 날 나조 철규 너 아매가 우리 형님 앞이 편지르 개왔더라. 두꺼븐 편진데 고분 종엘루 봉투르 했더라.》하고 동무들과 말하는 것이였어요.

《글둥이》는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기웃거리며 앉아 듣기만 했지요.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 《말둥이》와 《글둥이》는 빙그레 웃으며 그들에게로 돌아 앉았어요.

《애들아, 잘들 있느냐? 난 〈말둥이〉다. 여기 〈글둥이〉도 같이 왔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한 말을 〈글둥이〉는 도무지 알아 듣지 못 하겠다누나.》

아이들은 모두 눈이 둥굴해서 서로 쳐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말둥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동셉〉이다.》

《아니, 〈동섭〉 이지 〈동셉〉이는 뭐냐? 제 이름도 바로 못 대는구나.》

이 말에 아이들은 와그르르 웃음통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모두 《글둥이》가 왜 말뜻을 못 알아 들었는지 알아 차리게 되였습니다.

분단 위원장 수철이가 썩 나섰습니다. 《애들아, 이것 참 안 됐다. 우린 모두 영예로운 소년단원들인데 이렇게 말도 바로 할 줄 모르니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야, 말둥아, 우리를 좀 도와 다오.》 그래서 《말둥이》는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무들은 〈형님을 헹님, 편지를 펜지, 학교를 핵교, 그렇지 않니를 그러채이니〉 이렇게 ㅏ, ㅑ, ㅓ, ㅕ, ㅗ, ㅜ, 같은 소리를 〈ㅐ, ㅒ, ㅔ, ㅖ, ㅚ, ㅟ,〉 처럼 발음하고 있어.

또 〈길을 질, 길다랗다를 지다랗다, 힘을 심, 혀를 세로 이렇게 홀소리 〈ㅣ〉앞에 오는 〈ㄱ〉는 〈ㅈ〉로 〈ㅎ〉는 〈ㅅ〉로 소리 내고 있어. 그 뿐만 아니라 두꺼운 책을 두꺼븐 책, 연필로 그은줄을 옌필루 끄슨 줄〉 이렇게 〈ㅂ〉나 〈ㅅ〉를 살려서 소리 내고 있단 말이다.

그리구 또 〈학교를 핵교르〉하고 〈ㄹ〉 받침 소리를 빼 놓고 말하는 것도 있구.

〈종이로 만들다〉는 〈종엘루 맨들다〉, 〈공부 하러 간다〉를 〈공부할라 간다〉로 〈ㄹ〉을 더 넣어서 말하는 것도 있다.

또 〈저녁〉을 〈나조〉라 하고 〈할머니〉를 〈아매〉라고 하고 〈밟아서〉를 〈볿방서〉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방아다리 동무들 뿐만 아니라 함경 남북도, 량강도의 여러 지방에서 쓰고 있는 사투리이다. 이제 방아다리 동무들이 한 말을 표준말로 하면 이렇다.

〈야, 동섭아, 너 그렇지 않니?〉

〈그 날 저녁에 철규네 할머니가 우리 형님한테 편지를 가져 오셨더라. 두꺼운 편진

데 고운 종이로 봉투를 했어.〉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들어도 다 알 것이 아니냐! 날마다 학교에서 표준말을 배우면서도 사투리를 쓰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어느 지방에든지 사투리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말인 표준말이 있는데 왜 사투리를 쓰겠니. 모든 책은 다 표준말로 쓰고 방송도, 연극도 표준말로 한단다.》 라고 차근차근 타일러 주는데 《글둥이》가 불쑥 공책 하나를 내밀며 《이것이 누구 공책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철규가 뒤통수부터 긁으며 《거 내 거다.》했습니다.

《네 것이냐? 글쎄 그런 것 같더라. 애들아, 이걸 좀 보아라.》 하고 손'가락으로 한 군데를 짚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습니다.

《국영 목장 아저씨들은 부지런히 일하였슴미다.》

그것을 보다가 곁에 있던 순돌이는 참지 못 하고 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일하였슴미다.〉 가 뭐야? 〈일하였습니다〉지 하하…》 그러자 갑돌이도 《그래 너 철규는 〈부지런히〉를 〈부지러니〉라고 썼으니 그러면 〈부지런하다〉도 〈부지러나다〉라고 쓸테냐?》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글둥이》가 《너희들은 다 〈궁영 목장〉, 〈궁영 상점〉하고 글을 쓰는데 쓰기는 〈국영 목장〉 이라고 쓰고 말은 〈구경 목장〉이라고 해야 옳단다.》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둥이》와 《글둥이》는 그 날 곧 떠나 갔지만 방아다리 동무들은 그 날부터 사투리를 없애고 표준말로 말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우리 모두 수철이네 분단에서처럼 바르고 아름다운 표준말을 쓰도록 합시다.

과학 이야기 모임

과학 이야기 모임은 단이나 분단에서 언제나 조직할 수 있습니다. 흥미 있고 내용 있게 준비된 과학 이야기 모임은 소년단원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다지며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이 과학 기술을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들을 키워 줍니다.

1. 과학 이야기 모임을 어떤 내용으로 할가요?

○ 인민반 분단들에서는 《번개는 왜 일어 날가요》, 《무지개의 비밀》, 《낮과 밤》, 《바람은 어떻게 일가요?》, 《비는 어떻게 올가요?》, 《꿀벌의 세계》, 《벌레를 잡아 먹는 식물》등 재미 있는 제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중등반 분단들에서는 《산 속의 보물을 찾아서》, 《바다 속의 비밀》, 《전기가 하는 일》, 《보온병의비밀》, 《토양과 비료》, 《우리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 《잠과 꿈》 기타 화학 비료, 화학 섬유, 농약 등 화학에 대한 이야기, 자동차, 뜨락또르, 라지오 등 기계 이야기, 과학 환상 이야기, 각종 연구 소조들에서 실험 실습을 통해서 얻은 경험 발표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난 우리 나라와 외국의 유명한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들에 대한 이야기 등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2. 과학 이야기 모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가요?

인민반 분단들에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이 좋고 중등반 분단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과학자, 기술자, 기술 혁신자들을 모셔다 이야기를 듣는 방법.

○ 과학자, 기술자 혹은 선생님의 지도 하에 연구 한 제목을 발표한 다음 결론을 듣는 방법.

○ 부문 별, 내용 별, 과목 별 《물음과 대답의 날》을 정하고 한 문제 한 문제씩 내놓고 서로 자기 생각과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 받은 다음 평가를 받는 방법.

○ 견학, 관찰, 실험, 실습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성과를 가지고 실험기구, 설계 도면, 괘도, 제품 및 모형을 직접 놓고 토론하는 방법.

○ 과학 영화, 과학 서적을 보고 감상을 이야기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을 제기하여 해답을 받거나 과학 기술 강연회, 전람회 등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모임을 흥미 있게 잘 하기 위하여 단, 분단 위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요?

○ 단, 분단 위원회는 한 달 전에 소년단원들에게 모임 날'자, 장소, 제목, 내용,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 다음은 소년단원들이 잘 준비하도록 분공하고 도와 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도 마련해 주고 책도 얻어다 주고 견학, 상봉, 실험, 실습, 토론회 등도 잘 조직해 주어야 합니다.

○ 벽보를 통하여 일어나는 새 싹들을 제때에 평가해 주는 일, 과학자,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도록 련계를 맺어 주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한편 모임 날에 모셔 올 과학자, 기술자 선생님들이 보다 많은 지식과 기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봄날의 약초식물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 여러 가지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봄철에 돋아 나는 식물들 중에는 약초로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복수초

복수초는 이른 봄 우리 나라 산과 들에 많습니다.

복수초는 봄눈이 녹으면서 꽃이 피여 납니다.

복수초에는 《아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 심장의 활동을 강하게 하는 약으로 쓰입니다.

복수초.

할미꽃

할미꽃

할미꽃은 우리 나라 여러 지방의 산 기슭 또는 들의 양지바른 곳에 자라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할미꽃은 해열약 특히 열이 나는 리질에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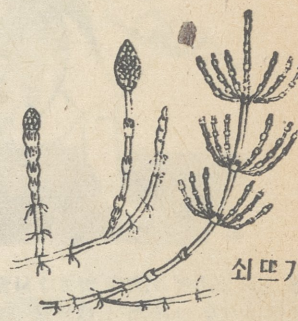
또한 티눈과 헌데를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줄기와 뿌리는 해충들을 죽이는데 좋습니다.

냉이

냉이는 이른 봄에 들과 길'가에 많이 자랍니다. 냉이는 여러 가지 병에 쓰입니다. 눈이 아플 때에 냉이의 뿌리를 짓찧어 나온 즙을 눈에 바르면 좋습니다.

또한 냉이꽃을 자리 밑에 깔면 이가 없어지며 해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꽃을 말리워 가루를 내여 8 그람 정도씩 대추를 다린 물에 타서 마시면 설사가 멎습니다.

냉이

쇠뜨기

쇠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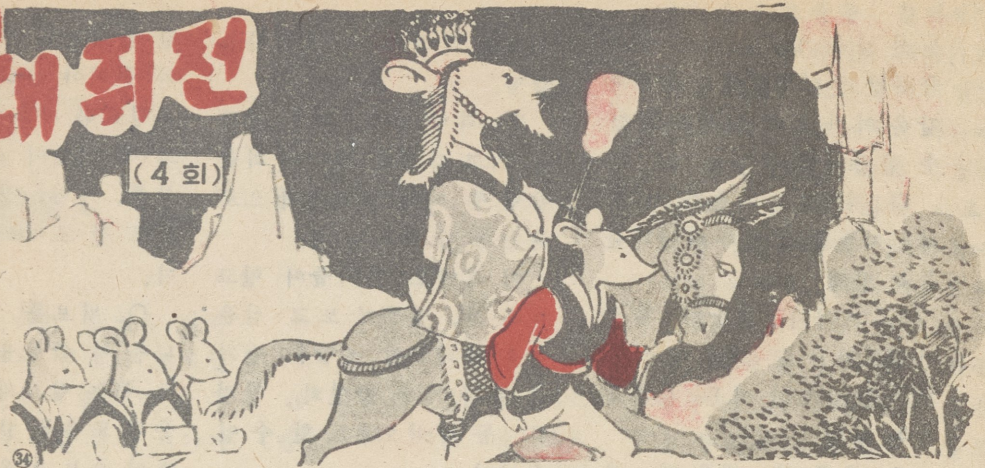
쇠뜨기는 우리 나라 여러 지방의 들, 또는 길'가에서 이른 봄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포자와 줄기는 3～4월 경이면 당분이 많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트스테린》이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오줌을 잘 누지 못하는 병 혹은 몸에 열이 날 때 약으로 쓰입니다.

련재 그림

서 대쥐전

(4 회)

글 백준선　　그림 전의남

㉞ 석굴 밖으로 나온 서 대쥐는 방울과 꽃술이 달린 나귀에 올라 앉는다. 그의 사치한 옷과 호화로운 모양새는 꼭 큰 부자집 량반의 아들에 틀림 없었다.

나귀를 타고 땅그랑 땅그랑 떠나 가는 서 대쥐에게는 말몰이'군도 붙었지만 시중 드는 자들도 여럿 따랐다.

그 중 가장 어린 동자쥐 하나는 땋아 느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푸른 두르마기에 깜장 띠를 가슴에 두르고, 통영 설합(통영 지방에서 나는 값진 합)에다 삼등초(옛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와 동래 연죽(동래 지방의 값진 담배'대)을 맵씨 있게 담아 들고 따른다. 이 동자쥐까지도 어느 대감님의 동자와도 같았다.

초가을 잎 떨어진 나무숲을 헤치고 삐죽삐죽 높이 솟은 바위 틈을 빠져 고을로 올라 가는 그들 일행은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㉟ 고을 관가에 가까이 이르자 사령은 나귀보다 먼저 관가의 대문 앞으로 달려 가 섰다가 서 대쥐를 나귀에서 끌어 내렸다.

그리고는 관도 벗기고 띠도 끄른 다음 다시 결박을 지워 놓고 원에게 알렸다.

원은 그 놈을 당장 잡아 들이라고 호령하였다.

사령이 서 대쥐의 상투를 잡고 허공 들어 동헌(원이 공사를 처리하는 집)으로 간다.

이 때 서 대쥐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넋이 빠지고 머리털이 죄다 빠지는 것 같았다.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며 원의 앞에 꿇어 앉은 서 대쥐는 죽은듯 산듯 자기도 분간할 수 없어 주둥이를 오믈오믈, 두 귀를 발쪽발쪽, 두 눈을 깜박깜박하고 있었다.

㊱ 원은 엄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쳐 물었다.

《네가 서 대쥐냐?》

서 대쥐는 이 말에 도리여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래서 낯색이 변하지 않고 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예, 과연 저의 성명은 그러하온데 무슨 죄가 있다고 량반을 이렇게 결박을 지워 꿇어 앉히우십니까?》

《이 놈, 네 죄를 네가 모르느냐?》

《저는 대대로 나라에 공로를 세운 량반의 자손이온데 무슨 죄를 말씀 올리랍니까?》

이렇게 신문이 시작되는데 벌써 날이 어두워졌다.

형리(원의 밑에서 죄인을 취급하는 사람) 가 들어 와.

《지금 날이 어두워 심문이 곤난합니다. 래일 량쪽을 함께 잡아 들여 자세히 심문하면 좋을듯 합니다.》 하고 아뢰인다.

원도 그렇게 하자고 허락하였다.

㊲ 서 대쥐는 래일 다시 심문을 받기 위하여 형리에 끌려 나왔다.

형리 는 서 대쥐에게 큰 칼을 씌우고 손과 발에 쇠고랑도 채워 옥에 가두어 넣 었다.

그러자 시중 들러 따라 온 쥐들은 모두 슬피 울부짖으며 두령을 섬기기 위하여 다 같이 옥으로 따라 들어 갔다.

서 대쥐와 그 일행은 옥 안에서 옥졸(옥에 갇힌 죄인을 지키는 사령)의 천대와 구박을 받게 되였다. 그래서 서 대쥐는 자기가 량반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를 쳐 보았다.

옥졸은 량반도 몰라 보는 모양이였다.

㊳ 서 대쥐는 곰곰히 생각하던 끝에 자기 무리들을 시켜 돈과 물품을 옥졸에게 내주었다.

그랬더니 량반이란 량'자도 모르는듯 눈을 도끼'날처럼 부라리고 으렁거리던 옥졸들이 곧 대하는 맛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옥졸은 돈과 물품만 아는 모양이다.

옥졸은 희죽벼룩하며 옥에 씌던 큰 칼까지 벗겨 편안히 누워 쉬라는 것이였다.

옥 안에서 서 대쥐가 누우니 큰 쥐는 그의 손을 주물러 주고 중'쥐는 다리를 두드려 주고 어린 동자쥐는 허리를 밟아 주며 위안한다.

그리고 대추, 밤 같은 과일도 옥안으로 들여다 그날'밤 요기를 하면서 서 대쥐 일행은 고통을 모르고 편안히 하루'밤을 지냈다.

㊴ 이튿날,

원은 동헌에 나와 앉아 서 대쥐와 다람이의 두령 평 정을 량쪽으로 갈라 꿇어 앉힌 다음 안석(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에 기대여 심문을 시작하였다.

먼저 서 대쥐에게 호령쳤다.

《요 조무래기야! 그래 남의 식량과 물품을 하루'밤 사이에 몽땅 훔쳐 갈법이 어데 있느냐? 평 정의 식량 50여 섬을 훔쳐 간 놈! 고한놈!》

좌우에 서 있던 형리들도 덩다라 목청껏 을러멘다. 그 소리에 서 대쥐는 겁에 질렸으나 겉으로 태연한 것처럼 낯색을 변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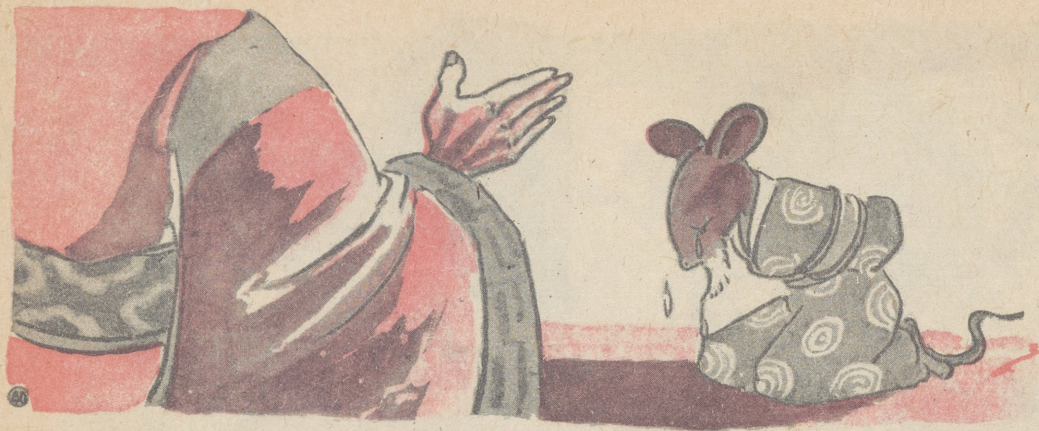
오히려 제가 먼저 웃음을 터뜨리고 나서 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대답하였다.

《국록(나라에서 내여 주는 생활비)을 잡수시는 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일찍 벼슬'길에 오른 사람과 늘 사귀여 왔지만 원님 같은 이는 처음 뵈옵니다. 그래 제가 도적질할 놈 같이 보입니까?》

《요 발칙한 놈! 저 놈의 볼기를 쳐라!》

원의 말이 떨어지자 형리들이 큰 매를 들어서 대쥐를 후리쳤다.

《아이쿠! 이거 살려주! 아쿠!》 서 대쥐는 죽는 시늉을 하며 엄살을 피웠다.

알고 보면 서 대쥐는 대굴대굴 굴면서 큰 매를 요리조리 피하고 맞지 않았다. 애무한 매만 두세 자루 부러져 허공을 날았다.

㊵ 원은 서 대쥐가 매에 못 견디여 죽을것만 같아 매를 멈추게 한 다음

《자 인제 정신이 들게다. 죽기 전에 바로 말 하렸다!》 하고 호령했다.

서 대쥐는 아예 죽은 체 끙 소리 하나 없다. 속으로는 지금 단단히 계교를 짜는 판이다.

이윽해서 서 대쥐는 숨을 돌리고 입을 연다.

《아이고! 엉엉!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 먼저 저의 래력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통하고 억울함이라고야! 저로 말하면 이 나라의 큰 공신의 자손이옵니다. 28대조 할아버지는 전란 시절에 저의 족속 수백명을 거느리고 야밤'중에 용감히 적진으로 들어가 적 군사들의 활'줄을 쏠고 살'대깃을 뽑아 우리 나라에 대승리를 가져 오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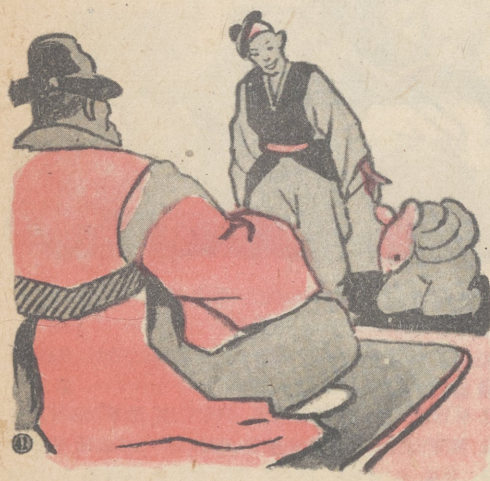
이 사실을 임금께서도 아시옵고 그 충성을 표창하시와 벼슬과 땅과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후 27대조, 26, 25, 24, 죽활 내려 오면서 충신으로 많은 땅과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저의 대에 이르러 그만 팔자가 사나와, 아이고!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들 둘 딸 셋을 두었사온데 아들놈들은 나다니다가 죽었사오며 딸년들도 술독에 빠져 죽거나 박첨지네 쥐창에 치우거나 고양이한테 물려 죽었사옵니다.

저의 안해 알락쥐는 자식들이 모두 죽자 심화'병에 걸려 눕더니 이어 두통, 복통 요통, 각통, 련주창, 아귀창 등 백가지 병이 겹쳐서 신음하다가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 아이고! 엉 엉 엉…》

서 대쥐는 막 소리를 내여 울음을 터뜨렸다.

㊶ 원은 서 대쥐의 말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낯색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 말은 그만 두고 평 정의 식량을 훔쳤느냐? 그걸 말하라!》

《아이고! 땅과 돈을 많이 가진 저의 풍부한 살림으로서 어찌 저런 다람이 같은 비렁뱅이의 식량을 훔쳤겠습니까? 대대로 나라의 공신이며 량반의 자손인 저로서 남의 것을 훔친단 웬 말씀입니까? 있는 땅, 있는 재산도 미처 돌볼 겨를이 없사옵고 자식과 안해를 죄다 잃어 버린 저로서 어느 하가에 무슨 경황에 다람이와 같은 상놈의 식량을 훔치겠습니까? 저는 애당초 그럴 놈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 온 사령한테 물으셔도 짐작되실 것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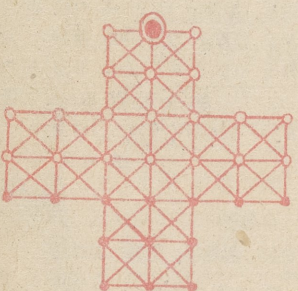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원은 어재 서 대쥐를 잡아 온 사령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 보았다.

어제 서 대쥐에게서 대접을 잘 받고 야광주까지 품'속에 간수하고 온 사령은 자기의 죄부터 드러날가 무서워서 서 대쥐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

(흥미 있는 놀음)

여우와 닭놀이

○ **준비 할 것;** 그림과 같은 판과 여우를 나타내는 한 개의 말과 닭을 나타내는 13 개의 말을 준비 한다.

○ **노는 인원;** 2 명 (혹은 여럿이 두 편으로 갈라 놀 수 있다)

○ **말의 배치;** 그림과 같이 여우는 (◎) 지점에, 닭은 13 개의(새까만 동그라미) 지점에 각각 배치 한다.

○ **노는 방법;** 닭이 먼저 말을 쓰되 다만 앞과 옆으로 한 점씩 다닐 수 있다. 여우는 앞과 옆으로 뿐만 아니라 대각선을 따라 모로도 갈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점씩만 갈 수 있다.

여우가 닭을 따 먹는 방법은 여우의 곁에 일직선 우에 닭이 있고 그 다음 자리가 비여 있으면 여우는 닭을 뛰여 넘어 빈 자리를 찾이하면서 뛰여 넘은 그 닭을 따 먹는다.

닭이 여우를 옴짝 못 하게 포위하면 닭이 이기고 닭이 많이 따 먹히여 6 마리 이하로 되면 여우가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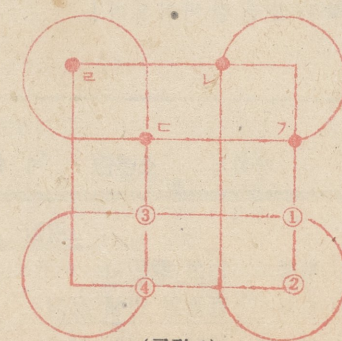
(놀음)

1. 네 바퀴 고누

이것은 두 명이 두는 고누이다. 각각 네 개씩의 말을 가지고 두는데 반드시 밖의 동그라미 길을 돌아서 첫 번 만나는 말을 먹는다.

례를 들면 그림 ①은 ㄴ을 먹을 수 있고 ㄷ은 ③을 먹을 수 있다. 이리하여 상대편 말을 먼저 다 먹는 편이 이긴다.

(그림 1)

(속담)

△ **그물이 천 코면 걸릴 날이 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아무런 일이나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

△ **열 번 재고 가위질은 한 번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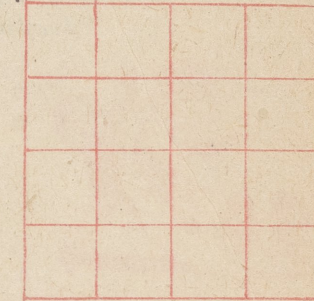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말.

△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인다.**

아무런 일이든 준비가 잘 돼야 일이 제대로 된다는 말.

글 맞추기

다음 란에 글'자를 가로 세로 써 넣어 모두 훌륭한 말이 되도록 하십시오.

가로 읽어도 말이 되며 세로 읽어도 말이 되도록 쓰시오.

3 호 찾아 내기 해답

야영과 등산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배낭, 물'병, 고뿌, 라침판, 손칼, 연필, 포충망, 확대경, 물통, 실, 치솔, 치약, 비누곽, 술.

3 호 수수께끼 해답.

고집, 콩나물.

(중등반)

나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다니며 젖을 먹었지요. 많은 고기들은 나를 보기만 해도 도망칩니다. 그런데 나는 20년 만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답니다.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민반)

나는 물에서 태여났어요. 여름 한철 땅우에 나와 한참씩 놀며 노래도 불러요. 겨울엔 물에서 추워서 못 있고 땅 속에서 지냅니다. 나는 봄이면 다시 땅 속에서 나와 세상을 보게 되지요. 나는 무엇일가요?

《높이 뛰기 선수》

—남조선에서—

이것은 남조선의 어느 《국민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세계에는 이름 난 체육 선수들이 많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남조선에는 세계 기록을 돌파한 선수가 없다.

삐돌이—아닙니다. 있습니다!

선 생—뭐? 아니 어떤 종목에서 세계 기록을 돌파한 선수가 있단 말이냐?

삐돌이—높이 뛰기에서 세계 기록을 돌파한 선수가 있습니다.

선 생—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삐돌이—신문에까지 났습니다.

선 생—신문에까지 났어?

삐돌이—네, 구름 우에까지 올라 갔다고 났습니다.

선 생—뭐 뭐?! 아니 그래 그게 도대체 누구라더냐?

삐돌이—물건 값이지요머!

2 호 현상 문제 해답

(중등반)

을지 문덕, 리 순신, 강 감찬, 박 지원, 정다산, 문 익점, 최 무선, 정 약용 외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인민반)

제비, 딱따구리, 클락새, 부엉이, 박새, 종달새,

2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중등반)

평양시 형제산 구역 중당 중학교 박 세철
평남도 맹산군 신상 중학교 선우 찬선
황남도 해주시 왕신 중 학교 리 중선
량강도 부전군 호반 중 학교 장 충식
함북도 회령군 원산 농업 학교 최 현식
자강도 시중군 흥판 농업 학교 김 기순
김 숙희, 리 명상, 김 련옥
평양시 보통강 구역 신원 중 학교 한 영순

(인민반)

평양시 만경대 구역 만경대 중학교 김 병성
자강도 희천군 동문 인민 학교 김 명도
평남도 북창군 광로 중학교 리 농실
자강도 시중군 시중 중학교 황 석종
평양시 평화 중학교 김 은희, 서 희선
평북도 선천군 삼봉 중학교 박 병성
평남도 덕천군 신흥 중학교 지 금선
함북 온성군 풍인 인민 학교 안 송월
평양시 사동구역 사곡 중학교 김 혁

잡지명 소년단 제 4 호 (류계 174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3월 21일 발행 1964년 4월 1일

ㄱ—430102 값 35 전

유익한 새들은 보호하자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는 3월 3일이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 온다.》는 말이 있다. 이때는 멀리 남쪽 나라들에 가서 겨울을 지낸 새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 시기이며 겨울 동안 우리 나라에 남아 있던 새들도 둥지를 틀고 새끼 치기를 준비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4월의 첫주를 《새의 주간》으로 정하고 리로운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다 리로운 새들을 보호하며 많이 번식시키기 위해 학교 둘레, 공원, 유원지 등에 새집을 만들어 걸어 주자.

새집 만드는 방법

새집은 두께 2.5 cm 정도의 널판자나 또는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는 통나무로 만든다.

뚜껑은 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앞에는 새가 드나들만한 구멍이 있어야 한다. 구멍은 둥굴게 해도 좋고, 네모나게 해도 좋다.

새의 종류에 따라 새집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새 이름	새집의 밑 너비 (cm)	새집의 높이 (cm)	밑에서부터 구멍까지의 높이 (cm)	구멍의 크기 (mm)
박 새 만 한 새	10×10	20	15	280
쥐 새 만 한 새	10×10	15	12	200
참 새 만 한 새	12×12	24	13	300
찌르러기 만한 새	15×15	40	35	500
쇠찌르러기만한새	13×13	40	35	400
쇠더구리 만한 새	13×13	40	35	400
청더구리 만한 새	17×17	45	35	600
오색더구리만한새	15×15	40	35	500
부엉이 만한 새	25×45	40	10	1500

새집의 색은 걸려고 하는 나무의 색과 비슷해야 한다.

새집 올리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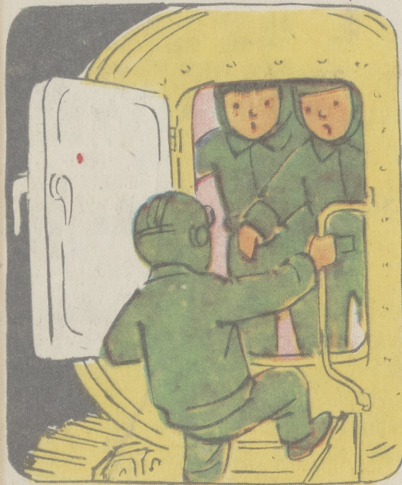
새집을 나무에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못을 박아 할 수도 있고 노끈으로 걸어 맬 수도 있다. 쇠줄 같은 것으로 걸 때에는 나무가 상하지 않게 쇠줄과 나무 사이에 쐐기를 넣는다. 나무 가지에 걸어 둘 수도 있다. 새집은 새들이 잘 볼 수 있고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에 걸어 둔다. 새집은 3월에 거는 것이 제일 좋으며, 겨울에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새들을 위해서는 가을에 걸어 주어야 한다. 새집은 반드시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걸며 거는 높이는 새에 따라 다르지만 외딴 곳에 있는 나무에는 좀 높이 걸고 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좀 낮게 건다. 대체로 4~6 m 높이에 걸어 주면 된다.

새집은 나무에 하나씩 건다. 한 곳에 너무 많이 걸지 말아야 한다. 한 정보에 4~6 개 정도 걸어 주면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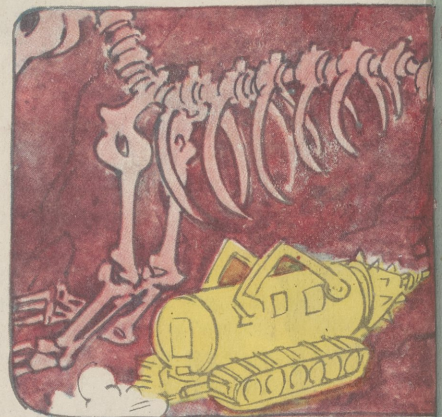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면 새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된다. 이때는 조용하고 따뜻한 남쪽 경사지에 모이탁을 만들어 준다. 모이탁은 그림과 같이 2 m 되는 기둥 우에 만들며 모이가 흘러 떨어지지 않도록 3 cm 높이로 테두리를 한 50~70 cm의 판을 고정시켜 만든다. 여기에다 우에 번데기 낟알 껍질, 조, 피, 돌피등을 뿌려 주며 모이탁 곁에 새집을 걸어 주어 새들이 춥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유익한 새들을 위하여 물 그릇도 설치해 주면 좋다. 이렇게 하여 유익한 새들이 학교 주변과 공원 등에 더 많이 찾아 들게 하자!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454 호

과학 환상 만화 땅속의 보물을 찾아서 (제 6 회)

글 안형룡　　　　그림 안창수

㉔ 데레비죤 영사막에 나타난 것을 알리는 명숙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었다. 어느새 관식이는 차에 뛰여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겁에 질린 명숙의 얼굴만 바라보는 창남이만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빙글빙글 웃기만했다.

㉕ 명숙의 말을 들은 창남이는 대
것이 어떤 동물의 화석이란 것이 짐작
창남의 거동을 살피던 명숙이는 무엇
치 차렸는지 이제는 전처럼 질겁한
아니다.

영사막에 나타난 화석을 관찰하던
그것을 《평양 력사 박물관》으로 가져
싶었으나 화석이 너무나도 크기때문에
한 위치만 지도상에 기입하기로 했다.
은 《괴물》의 다리 사이로 천천히 차를
다니면서 세밀히 관찰했다.

㉖ 화석을 지나 지하 1,000 메터 정도 내려 갔을 때 그들은 너비 3 메터 경사 40 도 되는 단층 (땅이 여러가지 지각운동으로 뭉텅 끊어져 금이 생긴 곳)을 발견했다.

물이 흘러 내리고 있는 것을 본 명숙이는 기계손으로 물 한 통을 퍼올렸다.

《금 금…》

실험관을 쥔 명숙이가 고아 대는 바람에 창남이와 관식이가 뛰여왔다. 실험 결과 물에는 0.004 %의 금이 있었다.

그들은 이 물이 어김없이 어떤 큰 금광맥을 지나 흘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㉗ 금광맥을 찾기 위해
올라 가도 금광맥은 나타나
명숙이는 혹 자기가 잘못
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타성파>로 탐지 해보자
창남의 말이 떨어지자 명
리 폭약 20 kg 정도 준비했
《팡》
요란한 폭음이 울리자 《
록면에는 크고 작은 복잡한
나타났다. 곡선을 바라보는
굴은 긴장됐다.

(다음 호에 계속